

제40대 목포대 총학 선거 '바람' 학생회 당선 영예

단독 출마로 11월23일 온라인 찬반 투표
투표율 67.5% 기록... 61% 학생지지 얻어

지난 11월 22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2023년도 목포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자치단체 선거 투표 결과 제40대 '바람' 총학생회가 당선됐다.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회장 박천하(고고문화인류학과) ▲남부 강산(토목공학과) ▲여부 김정은(사회복지학과) 학우들이 출마했으며,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총 4개의 단과대에서 임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단일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총 유권자 3,623명 중 2,44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492명 ▲반대 952명으로 '바람' 총학생회가 당선됐다.

바람 총학생회는 '총체육대회와 몸종대축제', '도서관 열람실 24시간 개방', '교내 체육 시설 개

편', '세부성적 공개 의무화',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변경', '교직원 학생대표가 함께하는 목대총회 실시' 등 모두 6개의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도교수 제도 개편', '가다실 9 주사 병원 제휴',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기기 설치', '도서관 학생자치 위원회 설립' 등 학우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6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변경' 공약에 대해 '통금 시간 연장은 대번 이야기가 나와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쳤어도 부결됐는데 총학생회가 나선다고 그 결과가 달라질까'라며 일부 학생들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16일 목포대신문방송사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



지난 11월 22일 치러진 2023 목포대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자치단체 선거 결과 제40대 '바람' 총학생회가 당선됐다.

대학 공개토론회'에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바람 총학생회는 '학생생활관 행정실과 협의가 되었고, 학우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라며 '총학생회는 학우들을 대변하는 기구이다. 많은 데이터를 모아 건의를 드리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서관 자치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축된 도서관을 학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적인 시스템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오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천하 바람 총학생회장은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0도 달라진 학생회를 보여드리고,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

는 공약은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목대총회이다. 이를 진행할 때 학우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를 함께 변화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정·공감·공유·소통'하는 투명한 학생자치기구를 만들겠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행사와 함께 하나 하나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할 테니 2023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현지 편집국장

·詩가 있는 아침



우리가 눈발이라면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주빚주빚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듣는
새 살이 되자

안도현 시인은...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졸업.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에 '낙동강'으로 등단. 운동주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수상. 무석대·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대표작으로 '연탄 한 장', '언어', '외로울 때는 외로워 하자' 등이 있다.

박동철 교수, 헝가리 검도연맹 감사패 수상 한국검도 우수성 유럽에 지도·전파

목포대학교 박동철 교수(사진)가 오는 2023년 1월 28일에 유럽검도 지도 및 친선 교류에 대한 공로로 헝가리 검도 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된다.

박동철 교수는 한국검도의 우수성을 유럽에 지도하고 전파하는 국위선양과 함께 친선 교류를 통한 유럽 국가 검도 연맹과 우의를 다져 왔다. 대회 기간 박동철 교수는 합동 연무 지도를 통해 한국검도의 우수한 기술과 이론 등을 전수해 왔다. 또한 목포대 검도부와 함께 2015년부터 매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유럽 국가대표 대항 검도 대회에 특별 초청되고 있다. 더구나 목포대 검도부의 성적은 지금까지 전승할 정도의 실력을 유럽에 전파하고 있다.

박동철 교수는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제



13~16회 세계선수권대회 국제심판 ▲제17회 세계선수권대회 심판배정 추천위원 ▲제14회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여자부 감독을 역임한 명예로운 인물로 활약하여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받았다. 특히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The World Combat Game(세계 무도올림픽)에 검도 8단부에 출전한 결과,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검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정부 포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했다.

양희진 기자



목포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지난 9일 목포대 도림캠퍼스 분수대 인근에서 창업동아리 성과전시회 및 플리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목포대 'LINC 3.0 사업단' 개최 창업동아리 성과전시회·플리마켓 성황

목포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LINC 3.0 사업단)이 지난 9일 목포대 도림캠퍼스 분수대 인근에서 창업동아리 성과전시회 및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교내 및 외부의 많은 학생과 교직원, 일반인이 방문해 열린 이날 행사는 2022년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중간 성과 보고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창업동아리는 LINC 3.0 사업단의 참여학과 학부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리마켓 셀러 또한 창업서포터즈를 포함한 동아리 9팀, 일반 참여 재학생 3팀, 목포대 졸업생 창업자 4팀, MNU메이커스페이스 사업

단과 함께했다. 이날 창업동아리 성과보고회 및 플리마켓에서는 판매 및 홍보용으로 ▲'새봄'팀은 액세서리 소품 등 ▲'하이업'팀은 막걸리 시음과 막걸리 분말 ▲'온앤오프'팀은 자게를 이용한 캐치 등 프린팅 티셔츠, 문구용품, 해나 등을 판매했다. 그리고 체험형으로는 ▲'동아리명 뭐하지?' 팀에서 모바일 앱을 키오스크로 앱을 직접 터치하여 실행해 볼 수 있었다.

목포대는 창업동아리, 창업인큐베이팅, 글로벌셀러 육성, 창업미니멀러스터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부윤진 부편집국장

목포대,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특별포상 시상식

목포대학교는 지난 11월 3일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선학과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생을 위한 특별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조선인 여학생을 회동하던 일본인 학생들에게 참다못한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에 맞서 일어난 항일운동으로, 이를 추모 및 기념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며 학원의 자율성과 면학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목포대는 지난 10월 중 각 단과대학장의 추천과 엄정한 공적심사를 거쳐 봉사



상에 행정학과 권유진, 미술학과 안소연, 공로상에 무역학과 이현진, 교육학과 양차영, 약학과 박시현 총 5명의 학생을 포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총장상 수여와 함께 소정의 부상을 전달했다.

입찬규 수습기자

정보보호학과, '한국정보처리학회 ACK2002' 동상 수상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와 정보보호 동아리 소속 이준권, 정원태 학생이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한림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ACK 2022'에 참여해 동상을 받았다.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논문 주제는 '드론 환경에서의 DHCP 고갈 공격 취약점 분석: 도구 개선 결과들 기반'이며, 지도교수 이경철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기초 강연 ▲초청 강연 ▲튜토리얼 ▲신진 학자 워크숍 ▲GISTeR-KIPS 공동 워크숍 ▲ITRC 특



별 세션 ▲SW중심 대학 세션 ▲구두 발표 ▲동영상 발표 ▲포스터 발표 등의 행사들로 진행됐다. 제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들을 선정하여 대학원생의 논문에서는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을,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에서는 대상, 금·은·동·장려상 및 산학협동우수상,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장상, 정충연합회회장상을 수여했다.

최선 수습기자

조경희 교수, '2022 국제 KOSCO전' 우수작품상 수상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조경희 교수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2022 국제 KOSCO전'에서 작품 'Grain'을 출품해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2022 국제KOSCO전'은 한국복식학회 주최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2여 개 국가에서 70여 명의 패션디자이너와 패션 관련학과 교수들이 1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고, 추계 한국복식학회 국제학술대회 기간 동안 동시에 개최됐다. 작



품 'Grain'은 용암이 흘러내린 것을 따라 굽은 암석 위로 용암이 다시 흘러내리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화산섬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윤경서 수습기자

산학연 육성사업단, 2022 산학협력 EXPO 참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은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산학협력 엑스포(EXPO)'에 참가하였다.

엑스포는 '동행하는 산학협력, 미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주제로 첨단 분야 인재 양성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등 산학협력 성과 확산, 산학협력 진화적 문화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목포대 LINC3.0사업단은 파인 세라믹 ICC의 성과를 공유 및 목포대 가족 기업 홍보와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가족 회사인 테라세라믹과 함께 홀쇼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에 나섰다.

목포대 파인세라믹 ICC 이상진 센터장은 "기업협업센터를 통해 세라믹 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술경쟁력 향상하여 전남지역 세라믹 산업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이뤘다." 또한 "이를 발판 삼아 지자체·연구소·지역혁신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쿼드코어ICC를 구축하여 고도화된 산·학·연·관 협력 공생 체계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경 수습기자

목포대 인권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목포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11월 24일 플라자60 소강당에서 학생회 임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목포대 인권센터와 전남여성가족재단이 협업하여 대학 내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여성가족부 소속 통합 감사인 김현선 목포여성보호전화 대표를 초청해 진행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성폭력과 대응 ▲2차 피해 예방 ▲차별과 폭력 없이 서로의 존엄을 돌보는 관계 맺기 ▲공동체로서의 모색 등을 내용으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방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은진 수습기자

드론 활용 건축물 촬영기술 재직자 교육 실시



목포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광주 드론 교육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건축물을 촬영하는 기술에 대한 재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재직자 교육은 목포대 LINC 3.0 사업단과 MOU 협약을 맺은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회원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건축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근로자의 기술 확보 및 현장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은 ▲드론에 대한 기초 항공 법규 ▲드론 기초 조정법 ▲기초 영상 촬영 등 드론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 ▲기체 운영 방법 ▲영상촬영기법 ▲영상 촬영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김건희 수습기자

목포대학교 인문대학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12회 인문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우들, 교수들 그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함께 소풍하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인문학, 축제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첫째 날 인문광장에서 인문주간 선포식을 하고, 손혜원 전(前) 국회의원 초청 특강으로 시작했다.

둘째 날 인문마루에서 열리는 인문대학 교수 포럼에는 ▲18세기 동아시아의 이문화 교류와 축제(박찬기 교수) ▲한국 사회 속에서 인문학, 인문대학은 무엇인가(피경훈 교수) ▲21세기 사이버펑크와 민족문

화(김명성 교수)의 주제발표와 교수 및 패널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인문대학 교수들의 저서를 소개하는 '북 콘서트'는 3일간 현장 콘서트 형식의 저자와의 대화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음식 문화축제 및 추억의 간식 만들기, 학생회를 이겨라 등 학우·교직원·지역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강석주 인문대학장은 "이번 인문주간을 통해 스승과 제자 그리고 선배와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었던 값진 자리였다. 인문학을 통해 창의성과 비판 정신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김현지 편집국장



목포대학교 인문대학은 '인문학, 축제를 열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12회 인문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문대학, '제12회 인문주간' 행사 성료 '인문학 축제를 열다' 주제 프로그램 다양

GTEP사업단, 두바이 전시회 참가 중동시장 개척 지원

목포대학교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학생들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된 '두바이 뷰티월드' 박람회에 참가하여 K-뷰티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며 지역 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을 지원하였다.

올해 2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장품 미용 전문 전시회로 25개국 수출기업과 138개국 바이어가 함께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뷰티 무역박람회로 인정받았다. 목포대 GTEP사업단은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제 6곳과 협력하여 사업단 소속 학생 7명을 현지로 파견했다. 이들은 박람회에서 제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을 진행하였다. 개최 기간 현장 판매와



더불어 132건의 상담 결과 총 252만 2천 달러의 수익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동호 목포대 GTEP 사업단장은 "중동시장에서도 K-뷰티 제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남 지역의 뷰티 제품이 많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희진 기자

교육혁신본부, 6C역량 키우는 학습법 워크숍 개최

목포대학교 교육혁신본부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총 4차례를 목포대 도서관 1층 이용자교육실에서 '6C 역량을 키우는 학습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기서 말하는 6C 역량은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학습역량으로 Cooperation(협업), Creativity(창의), Communication(소통), Character(인성), Computing ability(디지털기 기 활용능력), Challenge(도전정신)로 구성됐다.

'다양한 학습 품을 활용한 효과적 학습



방법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습법 워크숍은 1차 12명, 2차 19명, 3차 10명, 4차 14명으로 총 5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부윤진 부편집국장

목포대-국립전파연구원 인재 양성 협약 체결



목포대학교는 지난 11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파·방송·통신 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체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목포대는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공동 세미나, 연구발표회, 토론회 등 개최 ▲연구시설 및 시험 장비 공동 활용 ▲지역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현장실습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협약 기관들은 전남 지역이 강점을 지닌 농수산업, 조선·해양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팜, 스마트 선박 등에 활용될 지역 내 ICT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송민경 수습기자

목포대 공동실험실습관, 13억 상당 기자재 도입



목포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초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을 비롯해 11억 7천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도입한 후, 이번에 ▲공초점현미경 ▲열분석기 ▲분석용 초고속원심분리기 ▲총유기탄소분석기 등 총 25억 원 상당의 고가 기자재가 교체 및 신규 도입됐다.

목포대는 국내 대학 유일하게 분석용 초고속원심분리기를 보유해 국내 유수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분석의뢰 때 큰 제약 없이 원활하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목포대 공동실험실습관은 50개의 86억 상당 주요 기자재를 4명의 전문 관리 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및 외부 전국 연구기관에 정확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최현 수습기자

컴퓨터공학과, 'AI Hub 학습데이터 기반 해커톤 대회' 은상

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응용연구실 학생들이 지난 11월 22일 'AI Hub 학습데이터 기반 해커톤 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사업(NIA)'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업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NIA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발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질 높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 추진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목포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AI



Hub 양용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해커톤 분야에서 제안한 '딥러닝 객체 검출을 이용한 도봉 방지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은상을 받았다.

임현규 수습기자

이재빈 교수·김혜진 전임연구원 우수논문상 수상

지난 10월 부산 BPEx에서 개최된 'KSCE 2022 Convention'에서 목포대학교 연안·하천공간정보연구소 연구소장 이재빈 교수와 김혜진 전임연구원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은 이재빈 교수·김혜진 전임연구원과 허지오스토키가 공동 수행한 '항공수심라이다 웨이브폼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다중 가우시안 분해 기술연구'이다.

본 연구는 그린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심측량이 가능한 씨호크 '항공수심라이다' 장비의 신호처리 성능을 개선된 장비

를 통해 고밀도의 해저 지형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목포대 연안·하천공간정보연구소는 이러한 '항공수심라이다'의 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해저와 하상의 고정밀 공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Full-waveform 신호 및 데이터 처리를 연구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를 비롯한 한국의 8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KSCE 2022 Convention'은 1,000여 편의 학술논문 발표와 80여 개 전문기업 부스의 참가로 토목공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술행사이다.

정은진 수습기자

◆ Talk Talk Issue / 혐오 시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종교, 차별, 여성 등 주제 혐오 현상 심각 혐오 감정의 원천에 대해 좀 더 성찰해야

'한남', '꼰대', '맘충', '불박', '김치녀' 이 단어들은 한국인들에게 널리 퍼져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특정 사람을 넘어 그 나이대, 성별, 지위를 특정 집단으로 묶어 혐오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혐오 현상과 표현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 요즘 사회의 현실이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혐오해버리고, 혐오 시대에 어느새 동화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혐오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혐오 시대가 된 배경과 확산

먼저 혐오의 일반적인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한다. 인간 사이의 혐오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혐오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부터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혐오 표현의 전달과 유포 수단은 확대되었다.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혐오 표현의 빈도와 범위가 확대되는 주된 동력이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혐오'가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혐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현실의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불만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나서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이로써 오늘날 타인에 대한 혐오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어 이처럼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혐오 현상

우리나라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세대 간부터 성별, 신분, 직업 등의 갈등은 난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임신부석, 장애인 주차 구역, 흡연 구역, 노키즈존(No kids zone) 등이다.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남성이 임신부석에 앉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신의 비싼 차를 지키려는 비장애인 주차, 흡연 구역을 두고 걸으면서 흡연하는 소위 길방, 내 아이 데리고 다니지도 못한다며 화내는 부모, 독자들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보고 나면 혐오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기서 이러한 자기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받은 타인으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으면 도리어 역정 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나는 혐오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이라 부른 적이 없는지,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전쟁 발발의 불안감이 조성되어 북한을 나무란 적이 없는지와 같이 인간 내 인간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혐오도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혐오하고 있을 수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한 혐오 표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 집단을 향한 "이주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돈 벌 것이지. 재물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잖아."라는 공격적인 혐오 표현은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이들을 배제하려 한다. 이러한 혐오 표현을 개인이 말했던 선동으로 인한 사회 시선이 말하고 있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르는 사회적 효과를 창출한다. 혐오하는 원인을 보면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적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어지면서 혐오로 표출되기도 한다.

혐오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기준은 인간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비난받지 않을 존엄성이다. '혐오 표현은 자유이다.' 입장은 "표현을 법으로 막아버리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이 제재된다."를 뒷받침하며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아니다.' 입장은 "인간은 존엄하여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혐오 표현은 인권을 침해한다."를 뒷받침하며 대립하고 있다.

혐오 표현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혐오 표현이 범죄로 이어지거나 혐오 표현으로 인하여 사회갈등 심화와 차별 조장으로 사회통합 저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혐오의 인과관계

타인으로부터 혐오 감정을 산 사람은 그의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말한다. "아무 이유 없는 혐오가 아니다.", "그 사람이 혐오해도 될 짓을 했으니까 혐오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하면서 혐오를 정당화한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서 혐오는 특정 집단을 열등한 존재이자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로 규정하여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생산된다. 비슷하게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A 학우는 "혐오는 인과응보의 이치이다. 타인에게 비난받을 행동을 저지하지 않음으로써 선과 도덕의 통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인간 사회 속 문제점을 지적했다.

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목포대 학우들

Q. 혐오 시대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본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패션의류학과 구하나 학우: "인간이 인간을 혐오할 수는 있다. 다만 선동하여 함께 혐오하도록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나한테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불쾌하다. 그래서 혐오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창피해진다."

A. 전기및제어공학과 B 학우: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별로다. 혐오 표현으로 누군가를 조롱하여 잠깐의 재미를 얻을 수 있지만, 언젠가 그 소행은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A. 약학과 C 학우: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이해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혐오하는 것 같다. 나도 누군가에게 어찌면 혐오대상이 될까 봐 무섭고, 나도 누군가를 함부로 오해하고 혐오하진 않았는지 늘 되새기며 살아야겠다."

혐오 시대에서 모두가 존엄한 공존의 시대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책무이다. 혐오 현상 확산에 대한 우려와 혐오 표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커지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 표현의 대응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국민 상당수가 정부에서 혐오차별의 대책 수립과 인권위 등 혐오차별 규제 강화에 크게 동의했다. 한국인들은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여 인식 공유에 출발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는 혐오차별로부터 국민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강화 등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 사회 각 영역의 자율 노력도 미흡하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혐오 현상의 근원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혐오 자체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혐오를 비롯한 비하, 모욕, 멸시가 오가는 현세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로 돕고 이해하는 정 많은 사회가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공동체가 지닌 고유의 색을 잃어가는 것이 아쉽지 않은가. 혐오 시대에서 아무도 바뀌려 그리고 바꾸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로써 과연 인간은 혐오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양희진 기자 S201613@385.mokpo.ac.kr





안전안내문자

[전남도청] 장기 가뭄으로 주요 상수원 심각단계! 도민 여러분께
서는 생활 속 물 사용량 20% 절약 실천에 참여하여 가뭄 극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안내문자

[신안군청] 나부터 시작하는 물절약 ▶설거지, 빨래모아하기 ▶양
치컵 사용 ▶변기에 페트병 넣기 ▶수돗물 농사용 금지, 20% 물
절약 운동에 다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금



타들어가는 땅, 식수 걱정까지... 최악가뭄에 몸살앓는 남도

가뭄은 더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부지방은 올해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강수량이 805.5mm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코앞에 마주하고 있다. 가뭄은 농촌 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확보에 발간불이 켜졌다. 이번 가뭄은 왜 유난히 심각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대체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 요인 역대 최악
평년 강수량의 60% 그쳐
댐·저수지·하천 모두 고갈
물 절약에 온 국민 나서야**



>>> 광주·전남의 가뭄 상황

지난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강수량은 805.5mm로 평년 1,340mm에 비해 6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연중 강수량이 가장 많은 6~8월 여름철 강수량도 평년 703.2mm의 겨우 절반을 넘긴 412.3mm에 그쳤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에 문제가 생겼다. 광주 북구와 동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화순 동북댐의 저수율은 지난 20일 기준 31.45%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저수율인 70.55%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52.89%의 저수율을 보이던 주암댐은 지난 20일 기준 31.39%로 떨어졌다. 주암댐에 경우 가뭄 대응 4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렇듯 극심한 가뭄으로 동북댐과 주암댐은 바닥을 드러냈고, 동북댐은 내년 3월이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남의 광역수도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장흥댐 역시 지난해 56.1%의 저수율을 보였지만 지난 18일 기준 39.2%, 평립댐은 63.1%에서 33.1%로 감소했다. 지난 8월 말 평립댐에는 가뭄 대응 '심각' 단계가 일찍이 발령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상수원 60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전년도에 49.8%로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비는 내리지 않고 하루 평균 50mm의 물을 쓰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광주 식수원인 동북댐은 내년 3월, 주암댐은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고갈될 것이라 예측했다. 사태가 더 심각한 지방 상수원은 지금 당장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 입을 모아 경고했다.

>>> 가뭄의 원인

기상청은 가뭄이 심각한 원인을 여름철 강수량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름철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저기압과 정체 전선이 주로 중부 지방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비가 적게 내려 가뭄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9월 하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

었고 10월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적어 가뭄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전남은 1월부터 약한 가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봄철부터 범위가 확대되었고,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발생 일수는 245일로 1974년 이후로 가장 빈번한 상황이다.

>>> 가뭄의 심각성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업단지와 공업용수, 내년 농사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철강업체가 있는 광양 국가산업단지는 가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추가 취수원 확보에 고민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대다수 공정에서 제품이 생산할 때 물이 필요하고, 실제 물이 부족할 경우 공동 가동에 차질이 생긴다.

농업용수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장 수확해야 하는 겨울 배추는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해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속이 덜 차 상품성이 떨어졌다. 또 가뭄이 지속되면 내년 봄에 수확하는 마늘과 양파 수확 부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내년 봄 모내기 걱정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논에 물을 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은 민간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직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당장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섬 지역에서는 일찍이 제한 급수가 시작되었다.

>>> 제한 급수

섬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완도 노화읍 냇도에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제한 급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제한 급수란 특정 시간에만 수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완도 노화읍 냇도는 일주일에 하루만 인근에서 배로 180t의 식수를 날라 저수지에 부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제한 급수는 일부 섬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지 않고, 물 사용량이 줄지 않는다면 동북댐의 물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광주시는 내년 3월, 30년 만에 제한 급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와 대책

지난 21일 전라남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가뭄대책 상황보고회가 열렸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6개 분야 96개 사업에 1조 1,48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서는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 4개소 1,000억 원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8개소 1,024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2개소 4,772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22개소 4,034억 원 ▲도시 지역 식수원 개발 10개소 65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수지 148개소의 제방을 보수하고 2023년 초부터 담수를 추진하여 용수를 확보할 예정이라 밝혔다.

>>> SNS 기우제

광주광역시에는 '소원 빗방울 모으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SNS 기우제'를 진행하였다. 비를 염원하는 메시지, 우천 시 공약을 담은 댓글 1천 개가 모이면 참여한 아이디로 취약계층 시설에 우산 1천 개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런 기우제 캠페인에 광주시민들은 "광주에 비가 온다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비 구경을 할 거야.", "광주에 비가 온다면, 아이들과 우비를 입고 물장구치고 싶어요.", "광주에 비가 온다면, 부침개를 부쳐 먹을 거야." 등과 같은 소박한 공약을 댓글로 남기며 화답했다.

>>> 생활 속 물 절약 방법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으로는 ▲계량기 수도밸브 수압 조절하기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샤워 시간 절반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빨랫감 한꺼번에 세탁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세면, 면도 등 비누칠할 때 물 잠그기 ▲허드렛물은 버리지 않고 청소할 때 재활용하기 등이 있다.

이번 사태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지금과 같은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에 강수량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식수원 확보 방식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이미 흘러보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물 부족이라는 상황이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도, 당장 나 자신부터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부윤진 부편집국장

yundean0904@naver.com

◆ X의 시선 / 교내식당 전문영양사

박봉·3D업종 영양사 선택... 후회보다 보람찾기에 애써

'X의 시선'은 목포대학교 구성원이나 동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취재를 통해 지면에 실는 연재물이다. X란 미지수 X라는 의미로, 대학 구성원 또는 관계인을 의미한다. 재학생, 교직원, 교수, 동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코너를 통해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에게 목포대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어본다. 이번 호는 목포대 교내식당 전문영양사를 만나 그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들어본다.

/ 편집자 주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드라마의 대사 속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목포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위원 김서영입니다.

Q. 상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목포대학교에서 아동학을 전공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심리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졸업 후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여 청소년 상담사가 되면서 방황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는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상담사라는 직업을 고민하는 목포대 학생들에게 조언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상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을 돕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수많은 직업 중에 상담사를 선택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담사로 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Q. 상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관리를 잘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만의 남다른 자기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접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을 파악하고 관점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화해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만남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입장을 알 수 있으며

이해하기도 하고, 숨겨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Q. 선생님이 생각하는 '상담'은 무엇인가요?

상담은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보석을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 그 보석이 빛나지 않을 때 상담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사랑하기까지 함께 하면 마침내 스스로 내면에 빛나는 보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Q. 상담받기를 주저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상처나 어려움과 마주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상담받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담은 자신을 위한 작은 용기에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



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이 아닐까요?

Q. 앞으로 상담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나 향후 계획 또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생상담센터 '오솔길'이라는 방에서 상담을 오는 학생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방은 이름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걷다가 힘들 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맑이 나면 맑을 식혀주는 싱그러운 바람도 있는 곳입니다. 오솔길을 찾아주는 학생들이 쉬어가기도, 걷기도, 뛰어보기도 하며 마음속에 온기를 품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은진 수습기자 jejkay73@naver.com

Book

책 읽는 목포대 / '선량한 차별주의자'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 '선량한'과 '차별주의자'라는 모순된 단어가 함께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차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설명을 듣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되돌아보면 은연중에 차별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배척한 기억이 꽤 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직접적인 배척뿐만 아니라 특권을 누리면서 이를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를 누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의 세상에서 평등 외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틀째엔 내가 대중교통을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시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평범해 보이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특권이 된다는 내용을 읽고 머리끝 한 대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동학버스에도, 200번 버스에도 휠체어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내용을 곱씹으며 내가 지금 학교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인문대 수업 중, 교수님께 메시지 한 통이 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우분이 강의실까지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께서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강의실을 오기에 힘든 위치에 있어 이런 측면에서 학교가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도 인문대에서 처음 강의실을 찾

을 때 미로 찾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 학우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미로 찾기 수준이 아니라 산을 넘는 것 같은 막막함이 드셨을 것 같다. 차별은 숨어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일상을 관찰하며 내가 가진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반대로 다수에게 커 '보이는' 특권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책에서도 말하듯이 소수를 배려하는 대안이 나오면 편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나도 작년에 수능 유의 사항을 읽으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주는 여분의 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그 친구들은 수능 과목을 공부할 때부터 다수와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친구들은 공부할 때도 곱셈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시간을 더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위선적인 내가 참 부끄럽다. 책에서 토익 시험 등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생각할 거리를 주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책에

서 나온 사례를 토대로 나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억을 되짚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예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차별은 싫어하면서도 남에게 가는 차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항상 배우면서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 숨 쉬듯이 당연하게 평등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의식적으로 평등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반성해야 해서 솔직히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읽을 때는 힘들었지만 읽고 나서는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선을 장착할 수 있었다. 이번 책은 나를 정면해서 눈에서 차별의 비늘을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책을 차별을 찾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최선(식품공학과 22)**

사설

전국의 40개 국립대학 중 면 소재지에 학교의 메인 캠퍼스가 위치한 학교는 우리 대학을 포함해 세 곳에 불과하다. 요즘처럼 대학은 많고 학생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대학이 면 소재지에 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여간 불리한 것이 아니다. 면 소재지에 있으면서 대학 주변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이 없는 우리 대학 같은 곳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이 면 소재지에 있다는 것은 비단 접근성이 나쁘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캠퍼스 인근 주거환경이나 골목상권의 매력도 도심에 있는 대학에 비해 열악하기가 쉽다.

우리 대학 서편의 골목상권에는 대학가임에도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없다. 비교적 최근에 몇몇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들어오긴 했지만, 로컬의 특성이 묻어나지 않는다. 로컬 빵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독립서점 등과 같은 문화적인 공간이 거의 없다. 골목상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혁신적 소상공인, 즉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생태계가 약하다. 더군다나 좁은 골목길이 모두 양방통행이고 주차 공간도 협소해 교통이 혼잡하고 때론 보행자들이 걷기가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도로변의 전봇대에서 삼가와 주책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 거미줄이나 제각각의 무질서한 간판들은 걷는 이들의 시각적 쾌적성을 저하시킨다.

머물고 싶은 동네, 청계 만들기

눈을 돌려 캠퍼스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훨씬 괜찮은 편이다. 대학 부지가 16만 평이고 건물만 해도 44개 동이다. 지역대학치고는 적지 않은 숫자이고 조경 면에서도 단정하고 시설도 잘 관리되고 있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승달산을 찾은 등산객이나 우리 대학 구성원이 아니라면 우리 대학의 이러한 면모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종합운동장 관중석과 정문 인근 폐가와 가드레일에 막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의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 캠퍼스의 규모가 크고 단정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부 시설과 조경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문화예술 체육 시설들은 노후화된 것이 많고 수도 부족하다.

지난 10월 제9대 총장임용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회 내에 캠퍼스 명소화 기획팀이 구성되었다. 위원회 내에 전에 없던 캠퍼스 명소화 기획팀이 만들어진 것은 청계면 소재지 일원과 캠퍼스의 명소화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총장 당선자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과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조직에 행복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단을 만들어 지역재생과 연계한 캠퍼스 명소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루빨리 우리 대학과 무안군, 청계면 주민조직 관계자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재생과 연계한 캠퍼스 명소화로 우리 대학을 여가와 문화가 살아 있는 '꿀잼 캠퍼스'로 만들어 보자. 우리 대학 캠퍼스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오픈 캠퍼스로 구축해 나가자. 머물고 싶은 동네 청계, 상상이 현실이 되게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사정이다.

도림골 칼럼

강석주 교수 (영어영문학과)



제12회 인문 주간을 마치며

"인문학, 축제를 열다"로 주제를 정한 올해 인문 주간은 예년의 인문 주간과 달리 학생과 교수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했다. 매년 빼놓지 않았던 명사 특강과 에세이 공모전을 과감하게 빼고, 교수 포럼과 북 콘서트와 같은 유익한 학술행사는 살리면서 인문 광장에서 야외 음식문화축제를 여는 것을 인문 주간의 하이라이트로 기획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캠퍼스의 활기를 회복해보자는 의미에서 신나는 인문학의 축제를 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인문 주간이 시작되기 약 8일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선포식에 초청한 음악학과 학생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진중한 음악을 부탁했고, 댄스 동아리 코마의 춤을 부탁하게 취소했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 변화와 더불어 신경이 쓰였던 것은 날씨였다. 11월 초의 날씨는 상당히 변덕스러워 습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 야외 행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선포식이 있었던 7일과 음식문화축제가 있었던 9일의 날씨는 너무나 화창했고, 따뜻한 봄 날씨 같았다. 많은 교수님과 학생이 따뜻한 가을 햇살 속에서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고, 학우들의 자기자람에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흐뭇했다.

이번에 시도한 새로운 인문 주간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오랜만에 교수와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인문대학만의 문화를 만들어 냈다. 둘째, 인문 광장의 재발견이다. 인문대학 건물 앞에 조성된 정원이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중정으로 이어지는 인문대 통로 공간이 멋진 무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발견한 소득이다. 평소에는 학생들이 그 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동 통로로만 사용했지만, 약간의 노력만 들이면 온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인문대학의 7개 학과가 이번 행사를 통해 학과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선 인문대의 각 학과 학생 대표들이 인문 주관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좋았다. 그리고 음식문화축제를 통해 인문대 학생들이 학과를 넘어 함께 즐기며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고 싶다.

이번 인문 주간의 행복한 경험이 단순히 인문대학의 행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 전체로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음식문화축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문대학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도 상당수 참여했고, 내가 만난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다. 가수를 초청하여 왁자지껄하게 벌이는 축제도 재밌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서로 나누며 끼를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캠퍼스는 학문의 전당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젊음의 열정을 발산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인문학이 확대되는 시기에 진정한 삶과 행복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문학의 소중한 가치를 이번 인문 주관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목포대학교의 아름다운 캠퍼스가 대학 문화를 멋지게 구현할 수 있는 공간들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편소리

김현지 편집국장

첫눈과 마지막 신문

며칠 전, 올겨울 첫눈이 내려 학교 곳곳에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였다. 나에게 있어 첫눈이 내렸다는 건 마지막 신문이 다가왔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난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목포대신문사를 떠날 예정이다.

'2022년, 목포대신문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새 학기를 맞이했다'며 편소리를 처음 썼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날을 돌이켜 봤을 때, 올해 신문사는 마냥 잔잔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물론 '이번 호 신문 정말 잘 나왔다'며 신문사 식구들과 기뻐하던 날도 있었지만, 때론 하나씩 문제가 생겨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다. 이럴 때마다 갈피를 못 잡고 '과연 내가 편집국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자괴를 논하며 힘들들 겪기도 했다. 이때 우리 기자 회장이 나에게 "너는 기동 같은 존재야. 없으면

무너지지 거야."라고 말해주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내 자리매김에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운 내어 일어날 수 있었다. 아직도 나에게 이 말은 가슴 깊이 남아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현재 '신문사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목포대 신문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신문사를 떠나면 목포대신문사에서 일했던 시간이 꿈같고 그리울 텐데, 훗날 완성될 이 영상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야겠다.

임기를 마칠 때가 된 무렵인데도 나에게 '편집국장'이란 호칭은 낯간지러워 느껴진다. 실수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편집국장이라 불러주며 따라준 신문사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전하고 싶다. 각자 자리에서 펜을 놓지 않고 멋지게 글을 써 내려갈 윤진 언니, 화진, 은진 언니, 선, 찬규, 건희, 민경, 경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한다.

열린 신문, 열린 공간 목포대신문사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전화 : 061-450-2966

페이스북 제보 : www.facebook.com/MokpoUnivPress / e-mail : newspaper@mokpo.ac.kr

◆ Talk Talk Issue / 미래위한 공동 대응, 일회용품 규제

“일회용품 규제 확대 불구, 일상속 사용 여전” 의식 바뀌어야

일회용품은 사용하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점에서 편리하다. 하지만 일회용품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편리함에 비해 너무도 길다. 종이 컵과 나무젓가락이 분해되는데 20년, 비닐과 스티로폼은 500년이 걸린다. 최근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며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일회용품 규제 역시 강화됐다. 어떤 일회용품들이 금지되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

2019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 96개(1.4kg) ▲플라스틱 컵 65개(0.9kg) ▲비닐봉지 460개(9.2kg) 총 11.5kg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위생과 감염 예방이 중요해지면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환경부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선별장에서 처리한 생활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kg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에 관한 각국의 규정

뉴질랜드는 2019년 일회용 봉투와 비닐 쇼핑백 금지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2021년에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첫 단계로 2022년 10월 1일부터 특정 일회용품 및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했다.

그리고 독일은 2021년 7월 3일부터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포장재 법」 및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을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포장재 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음료 용기에 대한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되며 재사용할 수 있는 식품 포장재 및 컵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2025년 이후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조된 제품을 제외한 백화점, 마트, 호텔, 관광지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류의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이나 제품 포장을 위한 생산·수입의 목적 이외의 비닐봉투의 생산·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

한국에서도 지난해 12월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1월 1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전에는 식당, 카페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에서 ▲합성수지·금속박 재질의 일회용 컵 금지 ▲종이, 합성수지·금속박 재질의 일회용 접시·용기 금지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금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제외한 일회용 비닐식탁보 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 금지 등이 있었다. 또한, 편의점과 같은 도·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과 합성수지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합성수지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 사용금지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은 일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였다.

개정 후 더욱 강화된 규정이 지난 11월 24일부터 앞으로도 적용된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제과점에 한해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사용금지 됐다. 그리고 도·소매업에서는 비닐로 만든 일회용 봉지를 구매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우산 비닐을 비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은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이 금지된다. 비정기적인 감찰을 했을 때, 시설별로 매장 내 사용, 무상제공, 사용금지 등과 같이 규정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계도기간

본사 지침을 따르면 되는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달리, 소규모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회용품 대체는 상당한 타격이 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환경부 규제를 앞두고 "어떤 빨대로 교체해야 하나", "친환경 빨대 어디서 구매해야 하나", "종이 빨대는 거부감 심한 고객들이 많은데, 옥수수 전분 빨대는 되느냐"는 등 빨대 교체에 관해 묻는 글이 잇따랐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꾀하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일회용품 줄이기의 현장 혼란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으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규제에 계도기간을 두는 반쪽 시행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범을 바꾼 지 1년이 넘었는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에 대한 목포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레하이즈영 학우는 "계도기간 1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6개월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며, "일회용품 규제가 발령될 때부터 실행할 사람은 바로 실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원예과학과 오수민 학우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규제 1년이 계도기간이지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습관이 되어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함께 지키고 미래에 살아갈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일회용품 대체재

일회용품이 규제되면 이제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게 될까?

일회용품 가운데 가장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플라스틱 빨대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는 ▲종이 빨대 ▲유리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대나무 빨대 ▲실리콘 빨대 등이 있다. 현재 스타벅스의 경우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자연 분해가 가능한 대나무 빨대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빨대도 주목받고 있다.

그릇의 경우 유리나 실리콘 재질의 다화용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저널 '매터'에 실린 논문에서 사탕수수과 대나무로 만든 '그린' 일회용 식기류 재료를 만드는 기술을 소개했다. 그리고 비닐봉지는 종이봉투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옥수수 전분, 낙엽 등 천연 퇴비를 활용한 포장지가 개발되고 있다. 또한, 우산 비닐은 우산 빗발 제거기 설치로 대체할 수 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도 일회용품 제공 불가에 양해를 구하는 문구가 써진 냇말을 볼 수 있다. 목포대 학우들도 텀블러, 에코백, 다화용 그릇 사용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환경친화적으로 가는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다.

최선 수습기자

choisunny321@naver.com



◆ Talk Talk Issue / 계속되는 언론 탄압, 꺼져버린 관심의 불씨

MBC자막 논란 제기 언론탄압 민주주의 퇴행 불리 와

지난 9월, MBC가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도중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을 자막과 함께 송출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시작됐다. 최근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과 언론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종료 직후 MBC 기자와 설전을 벌여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동남아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는 아세안·G20 정상 회의에 참석하였다. G20 정상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과 통화질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G20 정상 회의는 현재 전 세계가 대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부분이 논란과 기사화가 되고 있다.

>>> MBC 전용기 탑승 거부

먼저 동남아 순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이동 수단인 전용기 탑승을 MBC 취재진만 거부했다. 전용기 탑승 거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통령실의 통보가 순방 출발을 불과 30여 시간 앞둔 밤 9시에 이루어졌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한 상황에서 다른 항공권을 확보하더라도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이번 순방 일정은 인천,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천까지 세 번의 여정인데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예매가 필요한 데다가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까지의 민항기 직항 항공편은 없었다. 민항기 경우 항공편으로 간다면 일정상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G20 둘 중 하나는 취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더군다나 순방 취재에는 전용기 내에서의 간담회, 대통령의 동정, 어떤 사람들이 동행했는지 등 전용기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취재도 있다. 이에 MBC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대통령실의 입장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대한 전용기 좌석 제공이 단순 편의 제공일 뿐이라며, 이번 조치가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 기준에 맞춰 탑승 비용도 지불한다. 이번에도 취재진 한 사람당 내는 순방 동행 취재 비용의 1/4 가량은 전용기 이용료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별도 입장 외에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MBC 입장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 취재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MBC의 추가 입장문을 보면 “문화방송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여객기 표를 구해서 동남아 순방 일정에 대한 취재 수행 계획을 전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총회를 통해 반대 6표에 찬성 3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다수가 기자단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 외에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어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순방이 끝나고 도어스테핑 이후 MBC 기자와 비서관이 나눈 설전으로 논란은 이어졌다. 여기서 도어스테핑이란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악식회견을 말한다.

>>> 도어스테핑

순방 후 도어스테핑이 열렸다. 한 기자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롯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하나의 기둥이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

받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보충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가 “MBC가 뭐를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라는 질문에 비서관이 인터뷰가 끝났는데도 왜 질문을 하나며 설전이 시작됐다.

이 일이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에 관련한 입장을 표하였다. 여당은 기자의 말이 아니라 신고 있던 슬리퍼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자신의 SNS에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은 채 팔짱을 낀 것을 들어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월 21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설전을 두고 “비판 언론을 낙인찍는 모습, 고압적인 태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하고 도어스테핑을 실행했던 이유는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의 행보는 반대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의 소통창이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설전으로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선거운동부터 있던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 때 가장 강조한 단어는 ‘자유’이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과 그 아래 대통령실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군다나 취임 이래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대통령이란 수식어까지 붙여졌다. 특히 이렇게 쉽게 노출된 언론 탄압 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치 탄압의 대가이다.

이 사실은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례와 최근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물론 사법적인 정치 탄압과 보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지 않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식 관련 의혹, 이력 허위 기재 논란, 접대부 의혹은 아직도 거론되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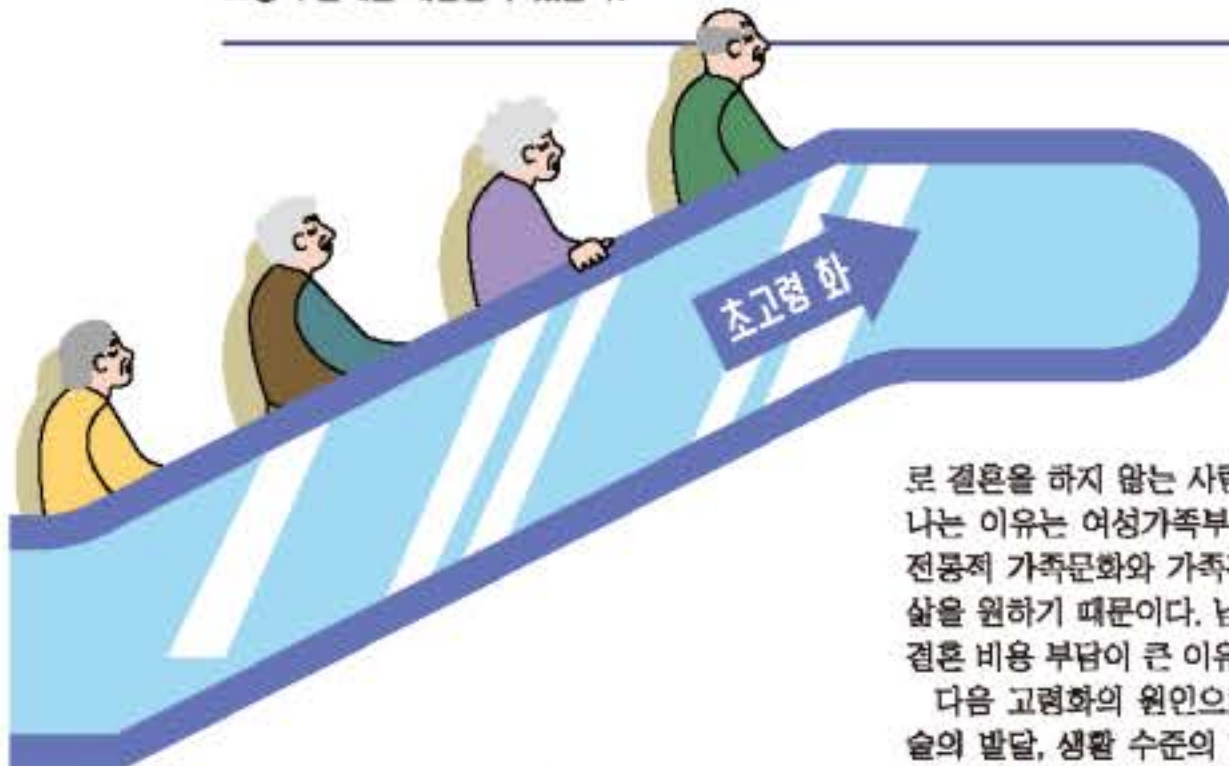
현재로서는 MBC를 향한 탄압 외에도 정치보복과 같은 심각하고 많은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MBC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에 조금씩이라도 저항하고 다른 사람이 입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 Talk Talk Issue / 인구절벽 시대 맞은 대한민국

고령화·저출산 문제 발등에 불, 생애 주기별 대책 마련해야

과거 초등학교에는 한 교실당 50명이 넘었고, 열 개도 넘는 반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20명이 채 안 된다. 이처럼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저출산으로 밝히고 이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구절벽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과 원인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이고,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감소 추세를 보인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동향 및 전망'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출생률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시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고, 해방 후 한국전쟁 기간에는 감소했다. 이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대 감소 추세로 변화되었고,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된 뒤 잠시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00년대 오면 서부터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2,4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를 기록했고, 2021년 총 출생아 수는 260,562로 2020년도에 비해 4.5% 감소했다. 연구 결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점점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인구 감소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여러 문제가 야기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4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임 연령층 여성의 감소, 만혼과 초산 평균 연령의 상승, 혼외 임신의 출산 억제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다. 두 번째로 고용과 결혼의 선택에 의한 혼인을 하락이다. 여성 근로자가 정년까지의 월급을 계산해서 결혼 비용, 육아비용, 노후 대비 자금 등의 고려로 결혼 생각이 낮춰질수록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임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세 번째로 근로시간과 출산이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대리급 이하 직급일 경우 임신 확률은 0.43% 낮아지고, 첫째 자녀일 경우 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이나 주말 등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회사 일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결혼할 확률이 3.7% 감소했다. 이 분석 결과는 근로시간이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비혼주의자의 증가다. 여기서 비혼주의자란 자발적인

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전통적 가족문화와 가족관계가 부담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 가족 부담 부담과 결혼 비용 부담이 큰 이유였다.

다음 고령화의 원인으로 개인의 수명연장,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평균 수명도 짧았다. 하지만 현재 인공 장기를 만들어 수명을 연장시킬 정도로 의학 기술이 발달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기는 문제점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 해서 유지가 어려워진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1~6학년 전 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전국 1,488개교로 집계됐고,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에 115곳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수능 없이 입학, 장학금 지원, 대학생 필요 전자 기기 지원 등을 제안해도 인원 미달 사태는 막을 수 없었다. 최근 한국대학 교육연구소는 현재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지방대는 2024년 3곳 중 1곳이 충원을 70% 이하가 되고, 2037년에는 84%가 충원을 70% 이하가 될 것을 전망했다.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다. 생산연령인구는 15세~64세의 사람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에 비해 약 67만 7,000명 정도 줄었고, 전년 대비 고령인구는 41만 9,000명 늘었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 또 소비가 줄면서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납세자가 감소하며 의료복지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회 전반적인 저축률은 청장년층이 부담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낮아진다. 저축률이 낮아지면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 위기다. 현재 경제 전문가의 97%, 일반 국민의 96.3%는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저출산 정책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 ▲임산부 의료비 감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사교육비 절감 등이 있다. 다음으로 노인 복지 정책으로 ▲치매 검진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에도 여전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현재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 1.67명인 스웨덴은 1999년 합계 출산율이 1.5명까지 낮아졌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다. 총 480일의 부부 육아휴직을 주는데 이 중 90일은 의무적으로 남성만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약 77%를 지급한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로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1.75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돼서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

끝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목포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A 학우는 "출산과 양육이 힘들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라며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기는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다.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B 학우는 "고령화가 되는 현실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며 "노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경서 수습기자 Kyungsuh1004@naver.com





“예비작가들의 문학 꿈나래 활짝 폈다”

제42회 목포대학술문학상 수상작 선정·발표
시, 소설, 비평, 논문 부문 엄정한 심사 거쳐
오는 16일 총장실에서 수상자 시상식 개최

지난 7월 25일부터 11월10일까지 공모한 ‘제42회 목포대학술문학상 현상공모’를 통해 예비작가들이 문학꿈나래를 활짝 폈다. 시, 단편소설, 비평, 논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문학상 공모는 갈수록 열기가 식어가는 창작 열정을 일깨우고,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지식과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장으로 마련됐다.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에는 시 부문에 ‘연탄’, ‘태양’ 강영웅(국어국문학과·4) 학우가, 단편소설 부문에 ‘누군가 나를 부를 때’ 김단(국어국문학과·4) 학우가, 비평 부문에 ‘포퓰리즘은 무조건 악인가?’ 정영현(교육학과·4) 학우와 ‘이

터널 선사인’ 김종연(화학·2) 학우가, 논문 부문에 ‘근대 한국인 여성해방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세핑’ 채설하경(사학과·3) 학우가 각각 당선돼 문학가의 꿈을 키우는 예비작가로 탄생했다.

부문별 심사는 시 부문 김선태(국어국문학과) 교수, 단편소설 부문 김개영(국어국문학과) 교수, 비평 부문 이광복(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논문 부문 조용호(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총장실에서 치러진다.

문형인 간사

제42회 목포대학교 학술문학상 입상작·심사평·입상소감

시 부문 당선작

연탄

부모의 사랑은 연탄 같다
자식들을 따뜻이 키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불태우며 묵묵히 전된다
어느덧 연탄이 다 타고 남은 자리에는
백발의 노부부처럼 흰 재만 남는다

태양

아직 어두운 새벽
태양은 가장 먼저 잠이 깬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세상을 환히 밝힌다
풍선처럼 두들신 하늘로 떠올라
잠이 덜 깬 문계구를 아불을 건어내고
빨갭게 색칠한 동녘 하늘을 꺼내 놓는다
그리고는 지상으로 내려와
만물의 얼굴에 묻은 어둠을 차레로 닦아주며
반짝반짝 아침 인사를 나눈다

시 부문 당선 소감

일상속 영감 시로 써내... 삶의 큰 활력소 될 것

목포대학술문학상에 입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글이나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가 안 되면 부끄럽고 창피할까 봐 목포대학술문학상에 참가하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참가했습니다.

좋은 경험을 쌓아보고자 도전정신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편한 마음으로 기대조차 하지 않아 지금 기쁨이 몇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들이 잘 전달되는지 생각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시들은 전부 일상생활에서 얻게 된 영감들로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졸시 ‘연탄’은 저를 지금까지 사람으로 키워 주시면서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부모님을 보며 쓴 시였고, 또다른 졸시 ‘태양’은 시험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문득 밖을 보니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썼습니

다. 항상 앞만 보며 달리는 인생에서 주변을 돌아봐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쓴 시라서 더욱 이 상이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좋은 시를 쓸 수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목포대학술문학상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 상을 타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저희 부모님과 항상 자신감이 없는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제 동기들, 그리고 항상 명 감의를 해주신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은 제가 재학 중에 생긴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고, 절대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목포대학술문학상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영웅
(국어국문학과·18)

시 부문 심사평

대상의 의인화를 통한 사랑의 구체화

올해 학술문학상 시 부문에는 27명의 학생이 88편의 시를 응모하였다. 양으로만 따지면 만만찮은 편수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국문과를 비롯한 인문대 학생들의 응모 편수가 현저히 줄고, 간호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 등 이공계 학생들의 참여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김선태

(시인·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는 시가 더 이상 문학 관련학과 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은 모두 기본기가 약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작품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는 우리 대학생들이 시사적인 문제에 얼마나 둔감하고 무관심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응모작들의 관심사는 사람과 이별, 인간관계에 따른 내적 갈등, 경쟁적 현실에 대한 절망감 등을 드러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작품 수준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떨어졌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은 배다희(미술·3)의 「충간소음」, 박재웅(행정·1)의 「불꽃놀이」, 최시은(간호·3)의 「둘러보면」, 강성구(정보전자·3)의 「먼지 한 톨」, 강영웅(국문·4)의 「연탄」과 「태양」 등 6편이었다. 「충간소음」은 충간소음의 문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불꽃놀이」는 불꽃놀이를 통한 가장 따뜻한 기억을 불러냈다는 점에서, 「둘러보면」은 사소한 것에서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지 한 톨」은 냉정한 자기 탐구와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들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모두가 직설과 설명의 언어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는 시가 산문과는 달리 추상과 관념의 직설적 배설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한 구체의 언어(형상화)임을 전혀 모르고 썼음을 말해준다. 이들에 비해 「연탄」과 「태양」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약점이 덜하다. 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정도는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너무 호흡이 짧은 소품이어서 선뜻 당선작으로 뽑기를 주저했다. 그래서 가작으로 할까 하다가 고심 끝에 2편을 합하여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강영웅의 시는 미진한 점이 있긴 하나, 응모작 전체가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다. 「연탄」과 「태양」이라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부모님의 사람이나 타자를 위한 사람을 감각적인 언어로 구체화할 줄 안다. 그러나 갈 길이 까마득하다. 기본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시적 수련을 쌓으라는 뜻이다.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김 단 <국어국문학과·19>

늦은 오후였다. 거리의 양 옆으로 상가 불빛이 환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로블록에 현기증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갔다.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 이윽고 거리엔 그녀만이 남는다. 갑작스럽게 한 남자가 무언가를 소리치는 것이 들린다. 그녀는 바닥을 향해 있던 고개를 들고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걸음을 늦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거리와 거리 사이 너머, 맞은편 도로에 한 남자가 서 있다. "민지야!" 그 소리는 정확히 그녀를 향해 와 닿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처음 들었던 소리가 방금 들었던 그 소리였으며, 남자가 민지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외쳤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얼굴은 잘 기억하는 편이었다.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맞은 편 남자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거리를 둘러본다. 다시 봐도 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남자가 있는 맞은편에도 그를 제외하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확히 그녀를 불렀다. 처음 보는 사람이, 마치 잘 알고 있다는 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남자는 그녀를 만나려 도로를 넘어오려는 듯 했다. 그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걸음을 옮겼다. 그 때 차 한 대가 튀어나와 그가 있는 쪽 도로를 달렸다. 그가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가 몸을 멈추는 순간, 민지는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달리기와 걷기 사이에서 달리에 더 가까운 정도로, 하지만 완전히 뛰지는 않는 애매한 빠르기로 걸었다. 도보 끝까지 걸어 이어져 있는 오른쪽 도로로 들어서자 변화가가 보인다. 변화가의 시끄러움은 그녀와 너무 멀어 보인다. 그녀는 뛰기 시작한다. 변화가를 가로질러 한참을 뛰자, 지하철역 입구가 보인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 내려간다. 민지야! 남자가 그녀를 불렀던 목소리가 여전히 그녀의 등 뒤에 달라붙어 있다. 남자의 목소리는 익명적인 목소리로, 중성적인 목소리로, 특징을 잡아낼 수 없는 하나의 파동이 되어 그녀의 안에서 메아리친다. 지하철역으로 완전히 내려온 그녀는 그제야 뒤를 돌아본다.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숨이 가빠다. 그녀는 입술 틈새로 뜨거운 숨을 내쉬었다.

여자는 스크린 도어 앞에 서 있다. 원피스의 끝자락이 힘없이 늘어뜨려져 있다. 그녀는 스크린 도어에 시선을 둘 뿐,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다. 여자는 조금 열이 빠진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땅에서 솟아오른 사람처럼, 이색하게 팔을

늘어뜨리며 서 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표정이다. 자신이 정확히 무슨 상황에 처해있는지 모른다는 듯,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얼굴이었다. 스크린 도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가구처럼, 김이 낀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흐릿하다. 바람이 갈퀴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을 훑고 지나간다. 여자는 습관적으로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한다. 여자의 치맛자락이 펄럭이며 그 아래로 하얗고 마른 다리가 보인다. 앙상하고 초췌한 발목이다. 이윽고 지하철이 마끄러지듯이 들어온다. 전철은 서서히 속도를 늦춘다, 멈춰 선다. 문이 열리는 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오듯이 열차에서 내린다. 한 여자가 그녀의 어깨를 스칠 듯이 지나간다.

열차가 출발하자, 그녀의 몸이 열차의 이름에 따라 흔들린다. 매일 겪는 익숙하고 지겨운 리듬이었다. 열차가 흔들리며 췌에에, 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 끝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녀는 비명 소리 같기도 한 바람 소리 속에서 아까 만났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린다. 남자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떠올라 있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자리에 굳게 서서 그녀를 마주보았다. 둘 사이에는 텅 빈 도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허공에서 시선이 닿는다. 그는 상대방에 완전히 시선을 빼앗긴 채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파악하며 그가 누구였는지 떠올리려 애쓰는 동시에,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 속에서 남자의 얼굴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와 닿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주위의 공기가 단단히 굳는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의 발바닥이 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가 다시 한 번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멈추었던 시간과 거리를 깨트리며 그녀의 어깨에 닿아온다. 열을 뿜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 같은 착각이 일다. 그녀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느낌과,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눈앞의 풍경과 그 속에 있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정수리에 닿아오는 햇빛을 예민하게 느낀다. 긴장감에 느끼지 못하고 있던 감정이 한 순간 너울처럼 밀려온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기 전, 그녀는 왼쪽 주차장에 있는 공터로 들어선다. 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 나무와 꽃이 누렇게 시들어 있는 화단이었다.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꽃은 언제나 죽어가는 중이었다. 완전히 시든다면 민지가 되어 흩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간당간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천이 다 벗겨진 페인트 튕에 약간의 모래와 담배꽂이가 담겨 있다. 봄

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날씨였다. 하늘이 빨갛게 물들며, 공터는 노을빛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낸다. 페인트 튕과 시든 꽃과 나무가 빨갛게 물들어간다. 바닥과 맞닿은 발에서부터 나쁜 온기가 전해져온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천천히 필터를 빨아들인다. 연기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며 그녀의 목을 약하게 자극한다.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그녀의 기억을 자극한다. 그녀는 잘게 떨어는 숨과 함께 연기를 내뿜는다.

담배를 피우는 건 그녀와 같은 사고를 겪은 여자애가 알려준 방법이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갔을 때, 민지는 소각장 뒤에서 그녀를 만났다. 한 번도 같은 반인 적이 없었던, 오다가다 보며 같은 학년인 건 알고 있는 정도의 사이였다. 애기를 나눠본 적 없었지만, 여자애는 자연스럽게 팔을 걸었다. "다 피우고 나면 오히려 더 괜찮아져." 그녀는 대뜸 민지에게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건네며 이야기했다. 둘은 소각장 뒤로가 종이 박스 앞에 주그리고 앉았다. 여자애가 불을 붙이며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인다. 그녀가 불이 붙은 담배를 민지에게 건넸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민지는 어깨를 조금 떨었다. 숨을 들이쉬면서 빨아들이는 거야. 너무 급하지 않게. 그녀가 옆에서 민지보다 몇 살은 더 된 어른처럼 알려주었다. 담배에서는 그 때와 같은 냄새가 났다. 언젠가 맡아본 적 있는 연기를 다시 맡자, 가슴이 기분 나쁘게 조여들었다. 담배에서는 계속 실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가 곧 뭉게구름처럼 하늘을 덮을 것 같다. 민지는 연기 때문에 까맣게 뒤덮인 하

늘을 떠올렸다.

그 날 새벽, 민지는 갑자기 눈을 떴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모래 바닥에 누워 있다는 걸 깨달았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는 와중에, 방금 겪었던 것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등 뒤로 딱딱하게 굳은 땅과 까슬까슬한 모래 알갱이가 느껴졌다. 한 밤 중인 것 같았는데, 노을이 지는 것처럼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민지는 허리를 일으켜 앉았다. 폐와 허리에서 극심한 고통이 일었다. 눈앞을 가득 채운 커다란 불길이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길이 그녀의 시선을 꽂 채웠다. 빨간 불빛 사이로 타들어가고 있는 건물이 보였다. 그녀가 방금까지 반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었던 건물이었다. 커다랗게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불길의 맨 왼쪽이 갑자기 흑 하늘 위로 솟구치며 열기가 끼쳤다. 뜨겁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폭발의 여파에 그녀는 쓰러지듯 다시 누웠다. 목에서 짙은 피 맛이 났다. 숨을 들이 쉴 때마다 고약하게 타는 냄새가 났다. 주위가 무섭도록 적막했다. 폭발 소리 후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뜨거운 고요함 속에서, 하늘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렸다. 하얀 먼지였다. 타다 남은 재가 눈처럼 쏟아져 내려, 그녀의 얼굴 위로 재가 소복이 내려앉았다.

"들이마셔. 괜찮아."

그녀가 민지의 어깨를 살짝 치며 민
(13면으로 계속)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펜'을 들게 어깨 두드려준 모든 분들께 감사

정말 많이 부족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글이 사람들과 닿을 수 있게 해 주신 김계영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맨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 덕분에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었다. 비단 나쁜만 아니라 북포대학교 내 글을 쓰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 전과를 한 후에 학과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듣고 있는지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글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어느 순간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오랫동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저번 학기 민교협에서 주최한 5.18 행사에서 한강작가의 작품에 대해 발표하며,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자는 생각이 들었다. 내 발표는 하상복 교수님의 논문에 전

적으로 빗을 지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하상복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내 생각을 발표하며, 드디어 글을 쓸 수 있었다.

2년 동안 다른 학우들과 철학 공부를 하며 정말 많이 배웠다. 학교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주변 사람들 덕분이다. 사랑하는 가족들, 열렁종방 친구들, 풀잎 문학 동아리 부원들, 같이 글 쓰는 친구들, 함께 공부한 철학 모임 친구들,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과 복수전공인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그 밖의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김 단
<국어국문학과·19>

〈12면에서 계속〉

지를 기억에서부터 꺼내온다.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괜찮아. 들어 마셔. 괜찮아. 민지는 무언가 흘린 사람처럼 담배를 머금고, 빨아들인다. 연기가 목구멍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연기를 들이 마시는 것과 동시에, 민지는 입과 코에서 연기를 내뿜었다. 숨이 가빠왔다. 목이 고통으로 뜨겁게 조여들며,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다. 허허거리는 민지의 옆에서, 그녀가 민지의 손에 들린 담배를 빼앗았다. 그녀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이 담배를 익숙하게 빨아들었다. 연기가 일렁이는 것 같은 그녀의 표정을 감춘다. 연기가 사라졌을 때 그녀는 조금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 봐. 마셔도 괜찮다니까. 그녀는 민지의 움츠러든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지는 그 때서야 그녀가 줄곧 손을 뻗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린다. 손바닥의 뜨거운 온기가 셔츠를 지나 민지의 어깨로 전해진다. 여자에는 조금 가벼게 숨을 내쉬었다. 민지처럼 숨을 붙어쉬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 갑을 민지에게 건넸다.

이제 그녀는 담배를 피울 때 숨을 붙어쉬지 않는다. 손과 어깨를 떨지도 않는다. 그저 조금 빨리 연기를 내뿜을 뿐이다. 연기를 맡으면 그녀의 손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가워진다. 생일 케이크

에 초를 붙일 때, 작은 초가 타는 냄새를 맡아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항상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담배를 피운다. 서늘하게 식어 굳는 것 같은 손가락을 일부러 움직이며 말랑한 담배 갑을 만진다. 그녀의 주위에 있는 풍경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환기 되지 않은 묵직한 공기가 느껴졌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아침에 차려 먹은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가구는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익숙한 온기가 그녀를 반긴다. 그녀의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다. 이불은 차분히 접혀 있다. 서랍에는 그녀가 고등학생 때 썼던 물건들이 아직도 어지럽혀져 놓여 있다. 그녀는 잠도 꾸지 않고 잠을 잔다. 눈을 떴을 때, 음식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방 문을 열고 나가자 중년 여성이 그녀를 바라본다. "왜 잤어. 더 자지." 그녀는 소파에 앉아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린다. 중년 여자는 요리할 계속한다. 조금 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익숙한 자세로 신발을 벗는다. "왔냐." 그가 소파에 앉아있는 민지를 바라보고 이야기한다. 때 마친 온 좋게 요리가 다 완성이 된다.

늦은 밤을 먹는 동안 남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밥 사먹는

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만원은 다 넘기니." "민지 너도 요새 점심 댄날 사먹지?" "응. 나도 댄날 사 먹지." 이따금 식탁 위로 익숙한 침묵이 내려앉는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천천히 밥을 씹어 삼킨다. 항상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일상을 보내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떨어지며 작은 돌맹이를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기분이었다. 밥을 먹은 뒤에는 다 같이 TV 앞에 모여 앉아 사과를 깎아 먹었다. 여자는 일일 연속극을 보자고 이야기한다. 재미도 없는 그저 썰 보겠다고. 아씨는 롤을 거리면서도 채널을 돌린다. 민지는 꽤 그럴듯하게 이어지는 그들의 수다를 듣는다. 가끔 민지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엄마의 부연 설명을 듣는다. 연속극이 다 끝날 때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디 가?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묻는다. 산책. 민지가 짧게 대답한다.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둘 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남자와 여자는 물끄러미 민지를 내려다본다. "이 밤에 나가게?" 열시가 안 된 시간이었다. 민지는 괜찮다며 웃어 보인다.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몸을 돌리기 전, 여자가 그녀를 부른다. "민지야."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그녀는 새삼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녀가 많이 늙었음을, 약해졌음을 깨닫는다. 엄마의 얼굴은 길거리의 다른 중년 여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얼른 들어와. 밖에 추워." 여자의 눈빛에 감정이 스쳐지나간다. 민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포착하려고 하지만, 감정은 빠르게 눈빛 너머로 사라진다. 그녀의 엄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건넸을 뿐이다. 그녀는 잠시 문고리를 만지작거린다. 그녀의 아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가 어딘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그는 항상 꼭 그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던 것도 다 멈추고 그녀를 보러 문 앞으로 향하곤 했다. 그녀는 화하게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파트 놀이터는 텅 비어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나무는 유독 크고 무성했다. 그녀의 엄마는 아파트 단지의 무성한 나무들이 좋다고 했다. 여름에 걸터 다녀도 전혀 안 더워. 그늘이 많아서. 언젠가 같이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였다. 그녀의 엄마는 봉투에서 자두 하나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자두를 한 입 먹자 끈적끈적한 과즙이 팔뚝을 타고 흘러내린다. 씹어 근처에서는 햇빛의 눈부신 맛이 났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굵고 튼튼한 나뭇가지가 하늘을 뚫고 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수많은 나뭇잎이 물결을 이룬다. 입 안에서 자두의 맛이 났다는 것 같다. 그녀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맹이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다. 우연한 사건 앞에서, 햇빛의 눈부신 맛은 손쉽게 빛을 잃어버린다.

민지라는 이름은 아주 흔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애들 다섯 명이나 보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애는 총 세 명이 있었다. 민지는 처음에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상대방이 곧 자기와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각자의 민지는 서로 상상도 못할 곳에서 잠을 자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사고가 있던 날, 누군가 복도에서 외쳤다. "민지야!" 그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기도 했고, 힘겹게 신음을 토해내는 것 같기도 했다. 복도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고이고 복구멍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목이 고통으로 죄여들었다. 옆에서 우는 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손끝으로 누군가의 팔과 어깨가 잡혔다 사라졌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공터에 누워 있었다.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녀를 불렀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름끼치는 적막뿐이었다. 노을이 지는 것처럼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집을 나선다. 버스를 타고 내려와 익숙한 거리가 보인다. 평일 오전의 골목길은 사람 없이 적막하다. 그녀는 고등학교 등교 때마다 걸었던 거리를 바로 기억해낸다. 거리는 여전히 같았다.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사고 이후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 번째에 열렸던 추모제에 가려고 하긴 했었다. 감당에 가까워지자 공기에서 미세하게 무언가가 타는 냄새가 났다. 향 냄새였다. 긴장되어 있던 어깨가 더욱 딱딱하게 굳었다. 일찍 감당의 입구가 보였다. 입구 너머 폐곡하게 걸려 있는 사진들이 보였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민지는 그 사진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 구별할 수 있을 터였다. 누군가 꼭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렸다. 복구멍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그녀는 결국 걸음을 돌렸다. 건물을 빠져 나올 때,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소각장에서 민지에게 담배를 건넸던 여자애였다. 여자애가 민지의 얼굴을 보더니 바로 민지의 어깨를 붙잡았다. 여자애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고, 티셔츠 사이로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그녀는 민지를 부축해준다. 겨드랑이 사이로 불쑥 여자애의 손이 들어와도, 불쾌하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서 민지의 등에,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달라붙는다.

둘은 담벼락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몇 년 만에 봤지만, 둘 다 여전히 같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자애는 연기를 내뿜으며 연신 땅 바닥을 내려다봤다. 가끔 신발을 움직이며 풍조를 맑는 것을 빼곤 움직임이 없었다. 담배가 타들어가며, 함께 있을 시간도 점점 짧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여자애가 민지를 바라본다. (14면으로 계속)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독자 몫을 쟁길 줄 아는 여유로움에 믿음이 가

7편의 소설을 읽었다. 적은 수이지만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품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사랑하는 당신의 이야기]는 회색적 삶을 산 어머니를 다루면서도 시종 유쾌함과 유모어를 잃지 않은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이 돋보였다. 무난한 문장과 이야기꾼의 기질이 이 작품의 매력이기도 했다. 본제 의식을 건져 올리고 이를 참여화하는 최근 소설들의 성향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될 것이다.

[투명탈]은 매우 특이한 소설이다. 의고체와 아포리즘으로 가득한 문장을 보고 있노라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떠오른다. 실제로 주인공은 차라투스트라가 10년 동굴 수렁 끝에 저자로 나와 가르침을 줬듯이, 산에서 내려와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심지어 사회의 '혁명'을 수습한다. 가면을 쓰지 않으면 괴짜로 인식되는 사회를 선정했는데,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고 저마다의 '페르소나'로 사는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담인 듯 진솔되는 주인공의 말에 담긴 사유가 만만치 않다. 마지막 장면이 주는 반전 또한 의표를

쪼른다. 어린 소녀가 나와 주인공 공에게 말을 벗으면 자신의 마음도 알 수 있는 나의 질문은 뭐랄까, 말은 다했으나 의미는 무궁(言有盡意無窮)하게 뻗어가는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화체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으며 그다지 큰 사건이 없다는 점에서 소설 형식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조금만 다듬고 구체적인 갈등과 사건을 만든다면 분명 그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의심치 않는다.

올해의 당선작은 청소년기 겪은 재난 관련 트라우마를 형상화한 [누군가 나를 부를 때]로 돌아갔다. 신춘문에 당선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응모작 중에서 소설적 본을 가장 잘 구현한 작품이다. 무엇보다 독자의 몫을 쟁길 줄 아는 여유로움에 믿음이 갔다. 최근의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또한 시의성을 가졌다. "우리는 살아 있잖아."라는 작중인물의 건조한 외침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도 가슴 벅벅히 울려왔다. 당선을 축하한다.



김 경 영
(국어국문학과 교수)

〈13면에서 계속〉

그녀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추억하는 듯 깊이 가라앉아 있다. 그녀는 민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고 있지 않다. 더 이상 말도 없이 시간을 끌 수 없었다. 민지는 충동적으로 물었다. 네 이름도 민지야? 여자애는 고개를 젓는다. 그녀는 시선을 피한다. 그리고 말한다. "너는 키 큰 민지야. 맞지?" 세 명의 민지는 각각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키 큰 민지, 똑똑한 민지, 예쁜 민지. 민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끝에 닿았던 몸들을 생각한다. 뜨거운 열기와도 같았던, 손끝에 닿았지만 결국 스쳐 지나갔던 어깨와 팔들을 생각한다. 그 속에 자신과 이름이 같은 민지가 있었을까 생각한다. 민지의 앞에 있는 여자애도 자신의 친구를, 또 다른 민지를 떠올린다. 똑똑한 민지였을까, 예쁜 민지였을까. 민지는 멍하게 생각한다. 담뱃재가 떨어지며 마지막 담배가 타들어간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여자애가 먼저 민지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의 등이 점점 멀어진다. 멀어지는 등을 보며, 민지는 그녀를 부른다. "있잖아." 여자애가 뒤를 돌아본다. 민지는 여자애의 이름을 부를 때가 돼서야, 자신이 그녀의 이름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허공에서 시선이 마주친다. 여자애는 민지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 도망치고 싶은 것 같기도 한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바람이 분다. 민지와 여자애 사이에서, 바람이 소용돌이를 이룬다. 말과 같은 시선이 마주치고 둘은 바람 속에서 침묵한다. 매일 사고는 일어났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죽었다. 자연재해보다 인재가 더 많았다. 누군가는 잊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과거에 함몰되면 안 된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세상. 언젠가 엄마와 함께 먹었던 자두의 씨앗이 목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말을 고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뿜는다. 여자애와 함께 피웠던 담배 연기가 공중에 남아 있다. 그녀는 연기와 같은 말을 내뿜는다.

"그 때, 후회 안 해?"

여자애의 표정이 일렁거린다. 그녀의 표정을 보자 민지는 자신의 말을 곧바로 후회한다. 그녀가 곧 눈물을 흘릴 것처럼 표정을 찡그린다. 눈동자가 물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인다. 그녀는 표정을 찡그리며, 감정을 참아내다가 서서히 얼굴 위에서 표정을 지워낸다. 민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 점점 등요가 멎고, 표정 위에서 사라진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친다. 나뭇잎을 쓸쓸하게 떨어뜨리는, 연한 바람과도 같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자 민지는 순간 자신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착각한다. 여자애가 다시 한 번 말한다. 이번에 그녀는 병긋거리며 입모양으로만 말한다. "우린 살아 있잖아." 둘은 여전히 떨어져 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서서,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민지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자애는 등을 돌려 강당으로 향했다. 민지는 여자애가 담배를 피우며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민지는 사라진 등에 대고 물었다. 우리가 우리라서 이런 걸까? 우리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걸까? 둘은 말하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 순간 민지는 그녀의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민지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착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여자애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병긋거렸을 뿐이다. 그 병긋거림에서 전해졌던 목소리는 모호하고 애매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단언할 수 없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을 때 보였던 입술의 움직임이었다.

학교 별관에 들어서자 벽에서부터 축축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며 서늘한 공기가 땀에 닿는다. 별관에는 텅 비어 있는 반 다섯 개가 있다. 그녀는 빈 복도를 걷는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걸음 소리가 적막을 채운다. 그녀는 세 번째에 있는 반에 들어간다. 복도와 다르게 반 안은 늦은 오후의 밝고 깨끗한 햇살로 가득하다. 그녀가 문을 열자 바람이 훑 끼치며 커튼이 일렁거린다. 민지가 문을 닫자 커튼은 다시 가라앉으며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하나씩 놓여 있다. 맨 앞줄의 책상 위에는 사진과 함께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다. 그녀는 책상을 눈길로 훑으며 지나가다, 한 자리 앞에서 멈춘다. 한 여자애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사진 속 여자애는 자신이 어떤 미래를 겪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미소를 짓고 있다. 뜨거운 햇살에 찡그린 듯 웃고 있는 얼굴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민지. 민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본다. 여자애가 알고 있던 민지는 아마 이 민지였을 것이다. 민지는 그 아래에 편지 하나를 두고 온다. 여자애에게 적은 편지였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과 함께 민지의 번호가 적어 두었다. 여자애는 언젠가 이 편지를 발견할 것이다. 연락이 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어디선가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남자애가 운동장을 가로 질러 뛰어가며, 공을 세게 찬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 위로 높게 뜬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공은 잠시 허공에 멈춘 듯이 보인다. 공은 곧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그 밑으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간다. 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학교를 빠져 나온다. 그녀는 거리를 걷는다. 그녀는 골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몽을 꿔던 것을 기억해낸다. 계속 걸어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았다. 거리는 오전의 나른함으로 가득해, 모든 것이 아직 잠에 들어 있다. 거리가 너무 밝고 환해 상점의 유리창 너머가 보이지 않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후덥지근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점점 거리의 나른함에 젖어가는 것 같다. 고양이 한 마리가 거리 구석에 눈을 감

고 누워 있다. 누군가가 뿌려놓은 물 때문에 거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걷는 동안, 도로가 서서히 마르는 것과 함께 아스팔트 녹는 냄새가 난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 담배를 꺼낸다. 불을 붙이자 연기가 일렁인다. 익숙하고 끔찍한 냄새였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연기를 맡으면 항상 느끼는, 기분 나쁜 두근거림이었다.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난다. 민지는 남자를 쫓아져라 바라본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민지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남자가 민지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를 바라본다. 민지의 입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새어 나온다. 눈이 마주치고, 그가 동그란 눈동자를 그녀의 얼굴에 고정한다. 남자가 입을 연다. "민지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허공을 가르며 그의 목소리가 솟구치듯 커다랗게 울려 퍼진다.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정확히 닿아온다. 그녀를 불렀던 목소리는 갑자기 돌아왔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진다. 목소리가 사라지자 적막이 찾아온다. 그 사이로 남자는 민지를 계속 쳐다본다. 민지는 남자가 자신을 부른 것이 정말 맞는지 의심한다. 남자는 골목의 초입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사람처럼,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자리에서 있다. 두 발은 단단하게 땅에 붙어 있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민지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다. 남자는 반가움이 드러나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텅 빈 얼굴을 그녀를 향해 보인다. 민지에게 집중하느라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상대방을 관찰하느라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민지는 주머니 안에 있는 담배 갑을 매만진다. 손을 계속 움직여도, 차갑게 굳은 손가락이 풀릴 줄 몰랐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그녀의 땀을 핏줄처럼 스친다. 바람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 무언가에 불이 붙었을 때 나는, 고약한 타는 냄새였다. 민지는 뒤를 돌아본다. 한 여자가 막 골목을 지나 사라지고 있다. 바람이 불자 여자의 치맛자락이 펄럭인다. 그 아래로 하얗게 마른 다리가 보였다. 발목이 유독 추워 보였다. 여자애는 등을 보인 채 그대로 골목을 떠나 사라진다. 남자는 여전히 두 눈을 크게 뜬 채 민지를 바라본다. 민지는 자리에서 중언거린다.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미래.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자신이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해낸다. 병실에 찾아온 엄마 친구들이 한 말 중 하나였다. 중년 여자 두 명은 민지를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덩석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어떡하니.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한 여자는 이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 여자는 민지의 팔을, 다른 여자는 민지의 어깨를 붙잡고 연신 쓰다듬었다. 두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울었다. 그 옆에서 민지의 엄마는 팔짱을 낀 채 서 있다. 두 여자의 손은 열기로 가득해, 손길

사라져도 피부에 불쾌한 뜨거움이 잔상처럼 남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다 민지의 엄마와 함께 복도로 나갔다. 병실 문이 열려 있어서 두 사람이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다.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미래라는 단어가 들렸다. 과거를 잊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한 여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거렸다. 비밀을 이야기하는 듯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얼핏 열려 있는 문 너머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팔짱은 풀어진 줄을 몰랐다. 두 중년 여자는 연신 민지에게 했던 것처럼 엄마의 어깨와 팔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한 팔을 중년 여자애에게 주었지만, 나머지 한 팔은 고집스럽게 옆구리에 붙이고 서 있었다. 병실 문 앞에 선 뒷모습이 찡찡했다.

민지가 그것을 추억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를 부른다. 남자 목소리는 아니다.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자신의 거드름이 팔을 끼워 넣은 채, 자신을 이끌었던 손길과도 같은 목소리였다. 민지에게 낯설지 않은 손길이였다. 남자는 여전히 골목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녀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그녀는 소리 내어 여자애가 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내어 본다. "우리는 살아 있잖아." 목소리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그저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녹음해둔 목소리를 틀어두는 것처럼 말이 입 밖으로 꺼내어졌다. 민지가 그 말을 하는 동안, 남자는 유심히 민지의 입술을 바라본다. 그녀의 병긋거림을 포착하려 한다. 그는 그녀의 말을 가늠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뜬다. 병긋거림이 끝나고, 그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을 짓고 있다.

햇볕이 뜨거웠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온전하게 비추었다. 얼굴 위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쬘어, 민지는 표정을 찡그린다. 열기가 연기처럼 그녀의 주위를 감싼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온전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 맥박이 고동치고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도는 것이 느껴진다. 가슴에 손을 대면 심장 박동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귓가가 쿵쿵거리며 울렸다. 손끝에 담배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연기가 가느다랗게 흘러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하늘은 여전히 오전의 밝고 환한 하늘이었다. 담배 연기가 곧 하늘을 다 뒤덮을 것 같았다. 수평선에서부터 시작된 붉은 빛이 하늘을 온통 물들이며 골목이 노을빛에 잠길 것 같았다. 담배 연기는 꺼질 줄 몰랐다. 그녀는 담배를 들고 있는 한 손으로 자신의 팔뚝을 매만졌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언거린다. 우리는 살아 있잖아. 고장 난 녹음기처럼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녀의 몸이 뜨거운 열기에 젖어갔다.

〈끝〉

포퓰리즘은 무조건 악인가?

비평 부문 당선작

정영현 <교육학과 18>

지난 정권과 관련된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왜 이런 말이 유행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원인 중 하나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권에서 주장했던 정책이건 뭐건, 눈 앞의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내세우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에게 ‘내가 하면 민주주의고 남이 하면 저열한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정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민주정치와 포퓰리즘을 두부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포퓰리즘에 대한 견해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생긴 병리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민주주의적 이상이 왜곡되고 변질된 형태가 곧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흐름이 바뀌고 있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본질적 반응, 나아가 하나의 도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렬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출발점은 케노번(Canovan)이었다. 케노번은 1999년 연구를 통해 포퓰리즘을 민주주의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통설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실패 혹은 결핍, 즉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가치 있다는 케노번의 ‘포퓰리즘 도전론’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민주주의의 한계와 현실 민주정치의 내재적 문제점이 포퓰리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병리론’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간 미묘한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 중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자론은 차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당한 대안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 케노번보다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 바로 알디티(Arditi)다. 그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시도했다.

알디티의 주장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일부이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와 올바른 민주정치를 두부자르듯 구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디티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한다. 알디티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일부로 여겨지는 이유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정치 노

선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직접 참여’를 내세우기에 반자유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종종 ‘애국자’, ‘민주주의자’라고 미화되곤 한다. 하지만 “내로남불”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이율배반적 실체가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민주주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포퓰리즘을 보다 넓게 생각해보고,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나름대로 밝혀 보고자 한다.

지난 5년간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도 접했다. 그리고 그리스,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포퓰리즘 분제와 그 부정적 영향을 익숙하게 접해왔다. “포퓰리즘은 시대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처럼 포퓰리즘을 제대로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마냥 ‘부정적인 것’이라는 편견만 있르 뿐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포퓰리즘의 본질이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 학자들 간에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먼저,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볼아야 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간단한 문장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질적인 현상처럼 보이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동일하게 부르는 경우를 떠올려보면 정의 내리기가 왜 어려운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 운동이 어떤 것인지는 대강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직관으로 파악된 것을 명확한 개념으로 명명하고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포퓰리즘의 개념은 그 자체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모순된 면이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진다. 마치, 인터넷에 유행하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라는 밈(meme)처럼 여겨진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개념을 규정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상반된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망치는 불순한 현상이라는 시점이 일반적일 듯 하다. 오죽하면 정치인들 스스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 놓고, ‘저는 포퓰리스트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고 다닐까. 하지만 포퓰리즘에 대한 우호적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개도국 지식인들 중 포퓰리즘에 기원한 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통 포퓰리즘을 ‘남미 빈곤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포퓰리즘 때문에 남미 서민층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크게 나아진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개념이 확정되지 않으니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곧 포퓰리즘’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당연한 말이

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어떤 개념은 대체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포퓰리즘의 경우는 논란을 낳기 더 쉽다.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포퓰리즘을 극단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겹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이 가장 강력한 주권자이지만 현실적으로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대중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밀려나기 일쑤다. 이런 현실 속에서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한다. 현실 상황을 개탄하며 ‘대중들의 주권 회복’을 주장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포퓰리즘은 출발한다.

보통, 포퓰리스트들은 대중의 요구를 부각시켜주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듯 보인다. 또한, 포퓰리스트들은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fake democracy’라고 공격하며 대중들의 직접 정치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에 의한 직접 민주제만이 변질된 민주주의를 바꾸어 정상화시킬 수 있고 주권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포퓰리즘은 엘리트 민주주의에 의해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서구식 대의민주제는 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로 보비오(Bobbio)가 지적해왔듯 민주주의에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실망감은 커져만 간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실패와 한계가 ‘포퓰리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렌도르프(Dahrendorf)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과 결핍으로 인해 포퓰리즘이란 세균이 번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권력자-시민 간에 큰 빈틈이 생기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지식, 신뢰 정보가 결여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누적된 상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렌도르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포퓰리즘이 오늘날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째서 포퓰리스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반사회적 의지를 나타내는가?” 그는 의회가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약 의회가 본질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포퓰리즘이 등장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의회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행정부 때문이다. 행정부는 의회의 견제를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행정부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은밀한 권위주의’가 포퓰리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비평 부문 당선 소감

포퓰리즘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싶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인터넷 기사 제목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 하나는 아마도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낙인이 찍힌 단어다. 정치인이 할 일은 안 하고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 일체를 포퓰리즘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의문이 들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포퓰리즘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不’라는 나인을 먼저 찍어놓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RISS에서 포퓰리즘에 관해 검색을 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케노번(Canovan)의 주장에 매료되었다. 그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일종의 그림자다.” 이 말은 포퓰리즘은 현재의 부족한 민주주의의 결핍 혹은 실패를 역설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까지도 병리론으로써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바라본다. 내 생각에 이는 부당했다. 케노번의 주장이 더 합당했다. 포퓰리즘이 성립하려면 ‘민중의 요구’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한다. 민중의 요

구라는 건 무엇일까. 민중이라고 일컫는 집단은 개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재 민주주의의 약점과 결핍을 짚어내어 보완을 요청한다. 이를 포착한 정치인들은 민중의 소리를 정치적으로 화답한다. 내가 볼 때 화답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인 개인의 문제이지 포퓰리즘의 문제는 아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결핍과 약점을 드러내는 그림자로서 기능할 뿐이다. 정치적 선동과 구분되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 내 의견을 글로 작성해 부고했다. 포퓰리즘은 절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선동과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묻고픈 것이 있다. “포퓰리스트들이 반사회적 의지를 피력한다면 그것은 의회가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다렌도르프(Dahrendorf)의 주장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영현
<교육학과 18>

〈15면에서 계속〉

케노번은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이유를 사회적 환경에서만 찾으려는 병리론을 비판했다. 케노번은 포퓰리즘은 일정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치유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그 자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림자'라는 것이다. 이블테면 민주주의가 잘 자리잡은 서유럽에서 포퓰리즘이 기승부리는 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단지 사회적 환경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깊은 곳에서 탐색 가능한 '긴장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그렇다.

그녀는 포퓰리스트들이 대중들에게 권력을 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로지 자신들만 올바른 민주주의자라고 선전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케노번의 지적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이상 현실적으로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을 문제 삼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케노번은 포퓰리즘은 정치에 대한 기대와 해석의 차이를 이용하는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등장하기 시작하며 민주주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가지 측면은 정치 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제도화된 규칙에 기반해 갈등을 해결하는 실용적 측면이다.

민주주의의 두 가지 측면에 의해 포퓰리스트들은 계속 등장한다. 포퓰리즘을 활용하는 사람들 중 민주주의를 통한 행복한 삶의 약속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존재론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이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실용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포퓰리스트들은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를 "갈등 해결과 분배를 적절히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케노번은 오늘날 정치가 실용주의에 지배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 참여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포퓰리스트들이 그 예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두 측면이 언제나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호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실용주의를 배제할 경우 정치는 이념 과잉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또한 행복한 삶을 외면할 경우 정치는 무미건조해지며 부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케노번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실용적 측면과 행복한 삶 사이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용으로 크게 기울어짐에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즉 포퓰리스트들이 실용주의에 치중된 재정적 설득력을 얻으려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노번은 포퓰리즘이 대중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뿐 아니라 민주주의 깊숙한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긴장'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즉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고 민주주의 결핍 정도에 따라 진화하기가 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몸체와 떼어낼 수 없다.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이다. 케노번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와 구별짓고, 떼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도전거리라고 말한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21세기 들어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포퓰리즘이 성행한다는 것은 민주

주의 안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언제나 포퓰리스트들은 대중에 호소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자신들만이 바랍직한 사람이라며 내세운다. 사실 정치인들 중 대중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 정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몸, 볼 가리지 않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표를 사는 것 행위는 차이가 있다. 바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정말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성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표를 받아내기 위해 그럴싸한 말로 이익을 확보해주는 것처럼 현혹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세율을 비약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듯 말하는 것, 중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는 것, 등이 그렇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가능할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판단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또, 건전한 정책과 공약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단순한 논리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이런 형태의 정책은 사람들의 감성과 직감을 타겟으로 삼기에 '선술집 정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에서 대중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지 않는 정당은 없다.

또 다른 구분 방법이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단순한 것처

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엉터리 해결 방법인 경우가 많다. 반면, 올바른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구분도 무조건 확실한 구분 방법은 아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누구나 대중을 대상으로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득하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와 그렇지 않은 정치인을 두부 자르듯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사이에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 누군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나에겐 참된 내용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포퓰리스트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내 결고 읊어대는 말 속에는 현대 민주주의가 보이는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포퓰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짐작 가능하다. 월슬리(Worsely)는 대중의 요구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아주 반민주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포퓰리즘의 의미에 대해 엄밀히 묻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묻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끝〉

이터널 선샤인

비평 부문 당선작

김종연 <화학과 19>

추운 겨울의 바다, 바람이 너무 거세다. 남자는 이 바닷가에 왜 왔을까? 이 바다와 너무 닮아 있는 남자, 지저분한 머리카락, 2일은 깎지 않았나? 정리되지 않은 수염, 뺨에 붉은 눈빛, 이 쓸쓸한 바다와 너무도 똑같은 남자는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의 한 여자를 만난다.

이 바다, 남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색색의 머리카락, 너무 뛰는 화려한 의상, 여자는 처음 보는 남자에게 과하게 들이댄다. 남자도 싫지 않은 듯. 남자와 여자는 오늘 처음 만남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가까워져 될까? 남자와 여자는 빙판의 찰스강위에서 별을 관찰하며 얼어붙은 소심한 남자의 마음을 여자는 사로잡는다.

갑자기 화면의 암전, 오프닝, 영화 시작 15분 만이다. 울며 차를 운전하는 조엘은 클레멘타인의 대신에 분노하며 슬퍼한다. 영화의 이야기는 에필로그의 이

전 상황으로 돌아간다.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이미 사랑하는 사이였고 클레멘타인은 기억 속에서 남자를 지워버린 것이었다. 영화는 기억의 많은 부분을 조엘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형식의 이야기로 시간을 거슬러 보여주는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티 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살)원제이고 우리나라에는 Eternal sunshine로 2005년에 개봉되었다. 이 영화에 대해 언급하려면 반드시 거론해야만 하는 인물이 있다. 감독인 미셸 공드리이다. 만드는 영화마다 환상적이고 독특한 영상미를 자랑하며, 그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그의 어린 소년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세상과 뮤직비디오 감독을 했던 그의 과거는 이 영화의 곳곳에 그만의 독특함을 감상할 수 있다. 초반부에 찰스강의 빙판위에 누워서 별을 보며 서로 동질감을 느껴가는 장면은 최고의 공드리만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 화면의 한쪽 귀퉁이의 하얀 빙판위에 누워 있는 남과여, 조명은 그들을 비추며 시작

〈17면으로 계속〉

비평 부문 당선 소감

명작의 감동, 오랜 시간 지나도 명료하게 각인

'Eternal sunshine'은 고등학교 졸업 후, 너무 많은 시간을 뒤흔 거리고 있을 때, 동생의 추천으로 보게 된 영화입니다.

나의 취향은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 포터'와 같은 판타지 액션인데, 나보다 4살이나 아래인 여동생은 남자들이 반드시 봐야 될 영화라며 반강제로 보게 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흔한 로맨스일 것 같은 나의 기대와는 반대로 감독의 빛나는 미장센들은 감동을 주는 영화였고, 흔한 시나리오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명작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현실적인 사람의 감정들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멋들어지게 느끼게 해주는 미셸 공드리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올 한해는 저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진로 방향을 수정해야 했으며, 2년 만에 복학도 해야 했습니다. 한 동안 놓

았던 전공과목도 다시 시작하니 힘들기도 했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부푼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별이 가깝게 정신이 멍

해 있을 때, 어느 무엇보다도 좋은 영화 한 편은 큰 위안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영화는 시간의 흐름 뒤에도 감동의 여운으로 계속 찾게 하는 힘이 있어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듯해서 좋습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나만의 플레이 리스트를 이제는 다시 감상해 볼 시간입니다.

부족함 많고 어설픈 글인데도 불구하고 후한 평가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김종연
<화학과 19>

〈16면에서 계속〉

하는 연인들의 신비로움과 달달함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화면의 삼분의 일을 조명이 꺼진 것처럼 어둡게 표현해준다. '이들의 앞날이 행복하지만 않겠구나'라는 복선의 의미인가? 행복했던 조엘의 기억이 지워져가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이 누워있는 병판위로 금이 가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둘에게만 집중하는 모습, '이들은 절대 헤어지지 않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감독만의 예술로 최고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선물해주었다. 화면 곳곳에 보이는 갑자 인형들, 유아스럽게 인테리어된 방 안, 하지만 전혀 주인공들과 어색하지 않고 잘 스며들며 감독만의 세계관으로 영화를 표현하고 있다.

조엘 또 한 기억을 지우고자 라쿠나(기억을 지워주는 회사)를 찾아간다. 너무 바쁜 회사, 서로의 기억을 지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SF영화인 듯 착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 로맨스 영화이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조엘의 기억속에서 클레멘타인을 지워가는 내용들이다. 무의식의 속에서 지워지는 기억들을 보며 조엘은 깨닫는다. 그녀를 너무 사랑했음을. 조엘의 머릿속 기억들은 정말 아름답다. 하나의 꿈처럼, 서로 다른 장소들은 벽 하나를 두고 설 새 없이 바뀌고,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그사이를 계속 넘나든다. 실내에서 내리는 비와 실외의 바닷가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침대의 그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도피하는 기괴한 모습의 연출들, 여러 기억들이 얹히며 만들어지는 기묘한 장면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결국, 조엘의 기억 속에서 클레멘타인은 지워지고 만다.

다시 장면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이미 기억이 지워지고 바닷가에서 만난 것이다. 서로의 취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들은 또 다시 서로에게 끌린다. 결국, 그들은 또 사랑에 빠지고 만다. 영화 중 많은 사람들은 라쿠나에서 한때 사랑했던 이들을 지워버리고 싶어한다. 처음 만났을 때의 불길했던 사람은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다시 끌리는 두 사람처럼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운명'이란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속속들이 마음을 다 알고 시작하는 그들이지만 또 라쿠나를 찾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당장 헤어졌다고 해서, 죽을 듯한 고통으로 힘들어 할지라도, 그 사람이나의 운명이었다면 나에게 다시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준다.

이터널 선사인은 개봉한지 오래된 영화이다. 영화의 좋은 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 이야기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변치 않는 인간의 마음이 느껴져서 좋다. 이터널 선사인은 인간의 내면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영화라 좋았고, 더 좋았던 것은 너무도 익숙한 배우들의 출연이다. 트루먼 쇼로 유명한 짐 캐리, 코믹 배우로만 알았는데 웃음기 톡톡 그의 연기는 단연 돋보인다. 케이트 윈슬릿, 나의 최고의 영화였던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역의 일라이저 우드, 마크 러팔로까지 그들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다.

〈끝〉

비평 부문 심사평

비평 본질 천착해 깊이와 논리 전개 치열해야

이번 학술상 비평 부문에는 10명이 15편을 응모하였다. 이는 영화평 2편, 서평(書評) 7편, 시평(時評) 혹은 논술에 가까운 6편으로 나뉜다. 심사자는 우선 '비평이란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거기에 좀 더 함당한 글을 추려내고 싶었다. 비평은 좁은 의미에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관련 작품의 가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행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평, 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서평, 시사성 있는 주제에 관한 논술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 심사위원의 "도구로서의 하찮은 여성의 삶, 〈홍등〉"과 김종연의 "이터널 선사인"이 먼저 눈에 띄었다. 그런데 전자에서는 참신한 관점을 찾기 어려웠고, 후자는 간결한 문체로 스토리와 형식적 측면에서 영화를 분석하였으나 영화의 핵심 주제들 파고드는 힘이 조금 부족했다. 다음으로는 서평을 살펴보았는데,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그치거나 책을 접하게 된 사적인 경험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면, 마치 독후감 쓰듯이 개인적인 소감을 피력한 글들이 많았다. 그 중 이재린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와 중국의 길 잃은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체제 비판'이라는 책이 함의하는 바를 비교적 잘 분석하였으나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제 남

은 응모작은 6편. 정승범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가?", "사회진화론은 어떻게 한국사회에 염증이 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고, 정영현은 "포폴리즘은 무조건 악인가?"에서 포폴리즘의 속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백승찬은 "공화국 다시 보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지배의 자유'와 '공공선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보수 청년들은 가스통이 아니다."는 글에서는 서유럽과 우리나라에서 극우 정당의 성장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많은 글이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저기 포함하고 있어 아쉬웠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당선작으로 고를만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우수한 비평을 찾기가 어려웠다. 다만, 김종연의 "이터널 선사인"은 좋은 영화평을 쓸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정영현의 "포폴리즘은 무조건 악인가?"는 시사적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두 편을 가작으로 추천한다. 더욱 정진하길 바라며, 내년에는 꼭 당선작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광복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근대 한국인 여성해방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셰핑

논문 부문 당선작

채설하경 (사학과·20)

〈목차〉

- I. 머리말
- II. 일제 시기 전남지역 남장교회 의료선교 현황
- III. 엘리자베스 셰핑의 간호활동과 지역민과의 소통
- IV.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 해방을 위한 노력
- V. 맺음말

I. 머리말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Elis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은 1912년 북미합중국 남장교회 외국선교국 파송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여성 의료 선교사이다. 2012년은 셰핑의 내한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녀의 내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겨레신문⁹⁾과 뉴스엔조이¹⁰⁾ 등에서 특집기사가 게재되었고, 자료들이 책으로 출판되었다. 2014년 6월에는 그녀가 소천한 지 80주년에 맞춰 80주년 학술세미나¹¹⁾가 열렸고, 7월에는 뮤지컬 공연¹²⁾이 상연되었다. 2017년에는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¹³⁾ 이렇듯 100주년에 맞춰 기념비적 활동과 행사를 통해 셰핑의 삶이 재조명되고 업적들이 주목받았지만, 이들은 모두 종교적 관점에서 그녀의 생애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셰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단계별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셰핑의 삶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다.¹⁴⁾ 이것은 셰핑에 관한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신학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셰핑의 삶에 대한 통전적 선교·성육신적 선교·토착화 선교·사회 선교 등 다양한 선교적 분석과 기독교 윤리적 분석을 통해 그녀가 한국 교회의 역사에 공헌한 바를 조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셰핑의 삶에 대한 간호학적 해석이다.¹⁵⁾ 셰핑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녀가 전문인 간호선교사로서 조선간호부회를 설립한 창시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간호학적 측면에서 일궈낸 업적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세 번째는 셰핑의 삶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이다.¹⁶⁾ 셰핑의 사회구조적 사업에 대한 측면을 조직사회학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그 사회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셰핑의 삶에 대한 교육적 해석이다.¹⁷⁾ 셰핑이 받았던 신학교육의 배경을 검토하고 그녀가 한국에서 펼친 교육사역을 분석하여 현대 기독교 교육에 주는 함의와 방향성을 모색한 것이다.

이렇듯 셰핑의 삶이 다양한 측면에서 언론과 연구를 통해 재조명되었고 학문적인 성과도 축적되었지만, 여성해방이라는 젠더적 관점에서 그녀의 기념비적 사건과 업적을 분석하려는 연구 시도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 이해숙의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핑(Elizabeth Johanna Shepping)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논문이 존재하는데, 이 논문은 셰핑의 노력으로 인해 조선인 여성들이 유교적 억압 구조로부터 해방된 삶을 부분적으로 경험했다고 기술한 점에서 연구자의 논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논문은 기독교적 맥락 안에서 여성성에 초점을 맞춰 셰핑의 삶을 해석하였고, 셰핑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그녀의 제자들의 업적과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셰핑의 간호활동과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녀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여성해방에 기여한 부분을 조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이 다르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성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 가지 문제의식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조선간호부회」와 셰핑의 편지를 중심으로 그녀의 삶을

〈18면으로 계속〉

〈17면에서 계속〉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핑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위해 2015년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에서 출판한 「제증원 편지1」¹⁰⁾에 나와 있는 세핑 선교사의 선교편지 및 보고서 사료와 1923년 5월 창립된 간호단체의 기관지인 「조선간호부회보」¹¹⁾ 자료를 참고하였다.

선교편지 및 보고서 사료는 당시 세핑이 직접 기록한 자료이고, 「조선간호부회보」는 당시 세핑이 회의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으며 약 100년 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간호부회보」 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사료 측면에서 차이를 두었다. 두 번째, 세핑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단행본 위주의 사료 분석에서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표와 사진 자료를 통해 당시 세핑의 입지와 업적들을 확인하며 지역사회에서 세핑이 노력했던 부분과 간호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 세핑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이효경 및 이금전과 같은 제자들의 활동을 살피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효경과 이금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핑과 함께 국제간호협회에 참석했다는 내용 이외에는 그들의 별도 업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다. 세핑의 역할로 인해 한국의 직계 여성제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자세한 사항들은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핑의 직계 제자 가운데 특히 이효경과 이금전의 활동 내용과 업적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전개하려고 한다.

본고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세핑이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의 여성지도자를 육성했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근대 한국인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해방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노력을 다시금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한국에 파견된 의료 선교사와 미국 남장로회 의료 선교사의 현황에 대한 사료 분석을 통해 내한 의료 선교사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세핑의 역할과 위치를 평가함으로써 그녀의 입지와 업적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세핑의 의료선교 활동이 여성해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역사적 관점에 주목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세핑이 초기 내한선교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간호사적 입지와 더불어, 그녀가 한국 여성의 지위와 처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의 역사적 업적을 다시금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일제 시기 전남지역 남장로회 의료선교 현황

초기 한국 선교는 미국 북장로회와 북감리회에 의해 시작되었고, 두 선교회를 시작으로 여러 교단 파송 선교사와 개별적으로 온 선교사들이 차례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다. 남장로회 최초의 선교사 파송 배경에는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 윌두우)의 역할이 크다. 그는 1891년 안식년에 귀국하여 미국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 및 테네시주 내슈빌 등에서 강연을 통해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²⁾ 이후 1892년 언더우드의 설교를 들은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들 중 7명¹³⁾이 한국에 파송되었다. 전남 및 전북 지역 선교부의 설치는 선교구역 분할에 따라 1894년 레이놀즈와 드류(A. Damer Drew, 1859~1924, 유대모) 선교사의 선교탐사여행 이후 진행되었다. 선교부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좌수영(지금의 여수) 및 순천에 설치되었고, 세핑은 군산선교부와 광주선교부를 중심으로 의료 선교 활동을 진행했다.

〈표 1〉 1884년에서 1940년까지 파견년도를 기준으로 한 내한 의료선교사 현황¹⁴⁾

		국가	소속교단	파견 연도							세부 합계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남성 의료 선교사	의사	미국	남장로교회	1	4	7	4	4	-	-	20
	역할 불분명 의료인 15)			-	1	1	-	-	-	-	2
미국 남성의료선교사 합계				1	5	8	4	4	0	0	22
여성 의료 선교사	의사	미국	남장로교회	-	1	-	-	-	-	-	1
	간호사			-	-	-	3	2	-	-	5
	역할 불분명 의료인			-	-	-	-	-	-	-	0
미국 여성의료선교사 세부합계				0	1	0	3	2	0	0	6
미국 의료선교사 총 합계				1	6	8	7	6	0	0	28

〈표 1〉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선교사 중 미국 남장로회 출신 남성 의사는 20명, 남성 역할 불분명 의료인은 2명으로 총 22명이었고, 미국 남장로회 출신 여성 의사는 1명, 여성 간호사는 5명, 여성 역할 불분명 의료인은 0명으로 총 6명이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남성의 경우 의사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우 간호사를 중심으로 내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병원의 초기 간호인력 중에서는 한국인 전문의료인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핑을 비롯한 미국 남장로회 소속 내한 여성 의료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이것은 이후 한국인 여성이 간호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일제 시기 여성 내한선교사들 중 세핑처럼 간호사로서 의료선교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표 2〉 1910~1920년대 조선인 여성의 면허 취득 후 취업 및 개원 현황¹⁶⁾

이름	한자	의학교	면허취득	취업 및 개원
김영흥	金英興	경의전	1918	동대문부인병원(1918), 인천부인병원(1921), 이후 평양개원
김해지	金海志	경의전	1918	광혜여원(1918), 평양개원(1921), 평양연합기독병원(1926), 인천부인의원(1927)
안수경	安壽敬	경의전	1918	동대문부인병원(1918), 서울 안산부인과의원(1942)
허영숙	許英肅	동경여의전	1917	영혜의원(1920), 허영숙산원(1938)
정자영	鄭子英	동경여의전	1920	동대문부인병원(1923), 진성당의원(1923)
박경(자)	朴貞(子)	동경여의전	1922	대구개원(1925), 만주용광의원(1935), 이후 북경 동화병원
현덕신	玄德信	동경여의전	1921	동대문부인병원(1924), 광주현덕의원(1927)

〈19면으로 계속〉

논문 부문 당선 소감

논문통해 전문성 키울 수 있어 행복

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학생활 1년 정도는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전염병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초국가적 위기는 약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질병 및 의료사에 관한 관심이 촉구되었고, 이는 곧 학문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질병 및 의료와 관련하여 근대 여성이 활약한 내용들을 연구해보고 싶었고, 특히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Elis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세핑의 여성 해방적 측면과 그녀의 제지들에 대한 업적을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고, 이것은 제 연구논문이 가지는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논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부분은 '자료 해석'이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사료에서 필요한 의미를 도출하여 적합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니 조금은 익숙해지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단계적 감정들을

이겨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초반에는 의욕도 넘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가 많아 끝까지 써내려갔지만, 학기 중에 논문 작성을 병행하게 되면서 점차 소홀해지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목적의식과 마음가짐으로 임하나에 따라 끝에서도 저의 태도와 감정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연구 논문 작성은 온전히 자신만이 이루어 낼 수 있는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삼 교수님들과 작가 및 여러 출판업계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존경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목포대학교 학술문학상에 도전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어 학교에 저의 이름을 빛낼 수 있음에 영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덕분에 저 자신과 저의 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설하경
(사학과·20)

〈18면에서 계속〉

이름	한자	외학교	년월취득	취업 및 개원
송복신	宋福信	동경여의전	1922	도미
김예희	金豫喜	북경여자 외학교	1923	평양연합기독병원(1923), 평양개원(1934)
유영준	劉英俊	동경여의전	1923	적십자병원(1924), 동대문부인병원(1925), 태화전참소(1925)
김정희	吉貞熙	동경여의전	1923	동대문부인병원(1926) 이후 한성의원
한소계	韓小濟	동경여의전	1923	선외주 안동현의원(1924), 전주 대동의원(1929)
이덕요	李德曜	동경여의전	1924	인천 성실의원(1928), 서울 동양부인의원(1930)
전혜덕	全惠德	동경여의전	1925	인천부인의원(1926), 원산부인의원(1928), 해주구세병원(1928), 개성개원(1930)
강기정	姜奇鼎	경의전	1929	나주의원(1931), 전남포 평안의원(1934), 태평 후 서울 평안의원
안성숙	安誠淑	평양외과	1929	

위의 <표 2>의 한국 여성 의료인은 미국 의료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미국 감리회 해외여성선교회 소속 의료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61)은 한국인 여성 의료사업과 간호인력 육성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인 여성들에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여성의료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박애스터와 같은 이화학당 학생들이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¹⁷⁾ 박애스터는 로제타 셔우드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공부를 하며 전문지식을 쌓았고, 귀국한

이후로는 서울의 보구여관과 평양의 여성병원(일명 공혜의원) 등에서 활발한 의료활동을 펼쳤다.¹⁸⁾ 박애스터 다음으로 허영숙, 김정희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인 여성 의료인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 배경에 대한 선교의료사의 의학 지식과 교육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감리교 선교 기관을 통해 육성된 여성 의료인이 대부분이 서울 중심의 경기도 일대와 평양·해주 일대에서 활동하였다면, 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 의료인은 1931년 나주위원에서 활동한 강기정이 유일했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여성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이들을 육성해줄 선교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서 세핑과 같은 간호 선교사의 활동과 여성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세핑은 전남지역에서 로제타 셔우드 홀 못지 않게 활발한 의료 활동을 펼치고, 한국의 여성 간호 분야가 대한 선교사 중심에서 한국인 여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핑이 여성 의료 인력의 육성과 간호 활동의 확산에 미친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III. 엘리자베스 세핑의 간호활동과 지역민과의 소통

세핑은 의료선교사로 1912년 2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한국에 왔다. 그녀는 광주 사역(1912.03.~1914.08.)을 시작으로 군산 사역(1914.09.~1917.08.)을 거쳐 서울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 운영과 간호사 훈련(1917.09.~1919.12.)을 담당하였다. 세핑은 1914년까지 광주 제중원 소속의 간호사로 일하면서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여러 환자들을 간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길에서 여자 한센 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집까지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였으며 자신의 옷을 입혀 주기도 했다.¹⁹⁾ 또한 여자 한센 환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읽게 하고 글을 쓰도록 교육하기도 했다.²⁰⁾ 세핑은 1921년 3월 16일 선교편지에 한센 환자의 구제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그들의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약 500명의 환자를 보면서, 늘 존재하는 나환자를 포함한 신생아에서 노인들까지 각종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여행에서는 "건강한 조선인"은 거의 만나지를 못합니다.²¹⁾

세핑은 이렇듯 많은 한센 환자들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유랑하며 살아가는 상황에 주목하여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산골짜기 봉선리 마을의 한센 병원까지도 오가며 정성껏 한센 환자들을 보살폈다. 1933년 최홍종 목사와 함께 한센 환자의 구제와 나병 근절책의 수립 및 실현 목적으로 구라행진을 했으며,²²⁾ 손과 발이 상처로 가득하고 누더기 옷은 피와 고름으로 엉켜 웅크리고 있는 한센인을 위해 주거복지 차원의 구라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²³⁾ 세핑은 광주 제중병원에서 간호사로 있으면서 많은 한센 환자를 돌보며 간호하고 적극적으로 복지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세핑은 1914년 군산으로 이임되어 1917년까지 4년 동안 군산 구암에수병원에서 활동했다. 그녀는 간호사 양성과 병원 사역이라는 주된 업무 외에도 간호교과서 번역, 조선간호부회 창설과 지도 등 그 사역의 폭을 점차 넓혀갔다. 1915년 전라북도 지역 여자 성경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넬슨여자학교에서 하위령 선교사 부인(William W. Harrison, 1892~1956)과 함께 주당 14시간의 실과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간호업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의료구호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1917년 9월부터 1919년 말까지 세핑은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대표로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로 파견받아 다른 교파 선교회의 간호사들과 연합하여 활동했다. 그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부 훈련과 강의, 병원 업무 수행, 일본어 공부, 간호 교과서 번역 임무 등을 맡았고 간호사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1919년 세핑은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한국인들을 치료해주었는데, 임제가 이것을 이유로 세핑이 서울에 거주할 수 없게 하였고, 그녀에게 '스프루(sprue)'라는 풍토병도 발병되어²⁴⁾ 의료 및 교육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1920년 이후 세핑은 세브란스병원을 떠나 광주로 내려왔고, 건강의 문제로 요양하면서도 광주 제중병원을 돌보았다. 광주와 목포에서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총체적 간호 및 의료 사역을 하였고, 제주도 산남지방인 모슬포에서 성경공부반을 인도하기도 했다.²⁵⁾ 1921년 선교편지 및 사역보고서를 보면, 세핑이 당시 한 촌락에서 선교의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눈을 치료하여 2년 만에 낮게 했음을 알 수 있다.

한 마을에 갔는데, "당신이 내 아기의 두 눈을 고쳐주지만 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도움과 치료 불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쪽 눈의 시력이 이미 완전히 실명되어 버렸으므로, 다른 한쪽 눈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생아의 엄마의 눈도 통증을 앓고 있어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어린아이를 충분히 제대로 목욕을 시킬 수가 없었으나, 그녀의 두 눈은 치료 효과가 아주 좋아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뜰 수 있게 되었고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²⁶⁾

이렇듯 세핑은 시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당시 한국인 환자를 치료해줌으로
(20면으로 계속)

논문 부문 심사평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다

심사 의뢰된 논문을 읽으며 경악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음을 먼저 고백해야겠다. 우리 학생들의 탐구 정신이 이 정도로 깊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두 손을 모으고 몇 번이나 다시 읽어야 할 만큼 진지한 논문을 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다. 몇 편은 조금만 손을 보면 학술지에 투고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아주 기쁘고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인다.

올해 응모된 논문은 8편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읽고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는 적잖게 고민을 했다. 학문 분야에 따라 논문 작성법이 다르고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국문학 분야를 벗어난 논문은 작성한 경험이 없던 내가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살펴보면 논문체제와 언어의 정확성, 문제 제기와 해결의 논리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채택한 근거의 타당성, 각주와 참고문헌의 정확한 표시 여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였다.

총 8편 가운데 우선 절반을 추려 수상권에서 제외했다. 여기에는 논리 전개가 단순하거나 소재를 낱것 그대로 사용하여 투박한 느낌을 주거나 개인적인 경험이 크게 작용하여 트포 형식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글들이 포함되었다. 수상권에 있는 논문들은 다시 읽었다. 그 결과 「고대 해남 현산 천 권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은 논문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3,4장의 내

용이 소략하여 주장을 확실히 증명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이유를, 「여순사건의 민간인 피해 양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건 전개 과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애썼으나 어조가 강하고 감정 절제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코로나19의 발생과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는 거대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상황일지 같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시켰다. 좋은 글들이었지만 수상작으로 뽑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상작으로는 「근대 한국인 여성해방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세핑」을 뽑았다. 1912년에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20여 년간 한국 여성사에 길이 남을 역할을 수행한 엘리자베스 세핑의 역할과 의미에 대하여 진지하게 탐구하고 차분한 어투로 객관적으로 서술한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도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은 다수의 저술들이 참고문헌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학부생이 쓴 논문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도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용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19면에서 계속〉

로써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냈다. 세핑은 조선인들의 상황과 그 처지를 파악한 후 방문간호와 공중위생 측면에서도 힘을 쏟았고, 사회적 돌봄 사역인 인신매매나 공창폐지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³⁷⁾ 이에 대한 내용은 1925년 1월 30일 『동아일보』의 「人道問題講演(인도문제강연)」 신문기사에 자세히 나와있다.

光州基督教青年會에서는 人道問題講演會를 지난 二十七日下五七時半錦町禮拜堂에서 崔英均氏司會로 開催하였는데 男女聽衆이 三百餘名에 達한바 基督教青年會目的과 教會關係라는 演題로 裴裕祉 西洋人氏禁酒問題씨에 對하여라는 題下에 徐舒平 西洋女子氏女子解放과 娼妓廢止라는 題로 崔興隆氏等の 意味깊은 熟辯에 拍手로 歡呼하는 聽衆들은 感激을 受었었다는데 禁酒禁煙에 對한 宣傳冊들을 一般에게 分布한 後同十時에 散會하였다고 光州³⁸⁾

이처럼 세핑은 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해방과 창기 폐지라는 제목으로 열변을 펴치며 한국인 여성들의 인권 보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녀는 간호활동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인 여성을 위한 구제사업을 펼친 것이다. 세핑은 다시 광주에 와서도 한센환자들에 대한 간호활동을 지속했다. 1922년 한국의 한센 환자 수는 1만 2천 명 정도였고, 그 중 1천 명 정도는 선교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세핑은 1926년까지 한센 환자를 치료하며 돌보았고,³⁹⁾ 질병예방법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1929년 「조선간호부회보」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나병과 폐결핵이 이 나라에서 증가가 됨으로 우리는 공중에게 몸 보호하는 방법과 이 위대한 병의 예방법을 가르치느니라 ... (생략)⁴⁰⁾

세핑은 당시 한센병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문제 중에 하나였음을 인식하고, 일반 민중들에게 질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1933년 세핑은 최홍종 목사와 함께 광주에서 150여 명의 한센 환자를 인솔하여 서울까지 11일 동안 걸어 올라가는 구라행진을 진행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한센 환자들은 일제총독부를 향한 대행진에 참여하며 헌신을 다하였다. 최홍종과 세핑 등은 소록도 전체를 한센 환자들을 위한 수용소로 만들고 치료와 문화시설, 재활을 통해 경쟁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결국 1939년 11월 소록도에 나환자 경쟁원 시설이 확장되어 한센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⁴¹⁾

세핑은 지역간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길을 걷다가 유방을 드러낸 채 걷는 부인을 만나면 불잡고 옷설 안으로 잘 가리도록 훈육하고, 남자(판대리) 꼬리라도 너풀거리면 빗을 내어주며 빗질하게 하였으며, 속치마가 내다보이면 치켜 입도록 하는 등⁴²⁾ 당시 사회에서 통하는 윤리적 규범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공중보건위생 실천을 위한 교육도 가르쳤고, 금주 및 금연운동과 윤락여성 선도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노력도 하였다. 세핑은 자발적으로 지역민들이 당면한 실제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천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듯 세핑은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소통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간호와 복지사역을 전개하며 그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다하였다.

IV.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 해방을 위한 노력

세핑은 1921년 선교편지 및 사역보고서에서 여자 성경공부반을 언급하고 있는데, 10일간의 성서집중교육을 위해서 총 442명의 여성들이 참석했고, 378명에게 수료증이 교부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조선인 여성들은 대부분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누구누구의 부인” 혹은 “누구누구의 할머니,” “이런 저런 마을에서 오신 분,” 심지어는 “돼지 할머니,” “동네 개 어머니”라고 호칭되었다.⁴³⁾ 세핑은 이러한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주고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개성의 중요성에 대해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여자 성경공부반 학생들은 성경공부 외에도 음성표기법, 노래, 위생관리, 가정 교육 등을 학습하고 이수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시대적 환경에 의해 여성들의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자기정체성이 회복되고 인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졌다. 세핑은 여자 성경공부반을 단순히 기독교 복음을 여성들에게 전도하는 기독교적 학습공동체에서 나아가 여성들에게 계몽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조선간호부회보」에는 세핑이 당시 성경공부반의 학습내용과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경회 때나 한달 성경학때나 그 외촌 사경회공동위생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강연도 하오며 그의 여러가지로 위생 관계되는 서적을 나누어주는 일이 있사오며 특히 광주 이일양성학교에서는 위생을 과정으로 넣어 가르치는 데 많은 재미를 보는데, 그 가르치는 교과서는 건강가정위생아기와 어머니영아양육론 상처치료법 재귀전염병예방 등을 가르치고 난 후 와주었으며 또한 다른 인사들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가르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⁴⁴⁾

이처럼 세핑 주도 하의 여자 성경공부반은 전염병 예방을 비롯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여⁴⁵⁾ 건강관리를 체계화했다. 여자성경학교는 1924년 남장로교선교회에 전남여자초급성경학교로 인정했고, 1925년 선교사회가 이 학교에 성경과 외에 보통학교 수준의 4년제를 3년에 마치는 보통과(일반과 또는 과학과라고 칭하기도 함) 설치를 허락했으며, 1926년 후원자 Neel의 도움으로 건물을 지은 후 교명을 이일성경학교(Neel Bible School)로 개명했다.⁴⁶⁾ 당시 이일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주로 학령이 지난 여성들이나 결혼한 여성들이었는데, 세핑은 이 일학교를 통해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누에치기 및 실밥기 교육 등을 실시하며⁴⁷⁾ 실과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모든 이일학교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주일학교 사역을 돕고,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을 모으고 노래와 읽기를 가르쳤는데, 이일학교 학생들이 1927년 3월 15일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학생 수는 모두 10,574명에 달했다.⁴⁸⁾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적 재능에 두각을 나타내며, 그것을 교회의 사역 차원에 이바지한 것이다.

이일학교는 세핑이 개인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사립학교였고, 학생들이 학비를 낼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일학교 학생들은 실과교육 경험과 스와인하트(Mrs. Swinehart, 1874~1957)의 도움을 바탕으로 각종 상품을 제작하였고, 반스 부인(Mrs. R. G. Vance)을 통해 그것들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⁴⁹⁾ 이렇게 이일학교 학생들의 주도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수익금으로 학교의 재정이 충당될 수 있었다. 세핑은 이일학교 내부 보통과의 발전이 학교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1929년 선교편지 및 사역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재봉과 누에치기와 실밥기와 베를 짜며, 면을 섞어서 순 명주 짜기도 하고, 뽕솜을 짜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일도 할 수 있게 하여 학교를 졸업한 후에 생업을 갖게 합니다. 저는 학교 운영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외에도 서로독 부인(Mrs. Swinehart) 부재 시에는 과부들을 대상을 하는 실업교육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1~14명 되는 여인들을 고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반스 부인(Mrs. Vance)을 통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으며, ... (생략)⁵⁰⁾

이처럼 세핑은 누에재배와 직물생산 등을 통해 이일학교의 재정을 충당하면서, 이를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즉, 여성에게 실업교육을 실시하고 졸업한 후에는 스스로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여성 교육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 자립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외에도 세핑은 이일학교를 통해 김화남, 이영희, 홍승애 등 많은 전도부인과 사회복지계 인재를 양성했다. 김화남은 전남성로원을 설립했고, 이영희는 이일성로원을 통해 노인복지를 실천하였으며, 홍승애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사랑의집을 지원하였다.⁵¹⁾ 세핑은 이일학교 이외에도 여성조력회, 여성절제운동, 확장주일학교 운동, 대한간호 협회를 통해 단계별로 다양한 여성해방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세핑의 선교사역은 이일학교를 시작으로 단순히 여성교육 및 구제기관의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하여 사역들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여성조력회는 오늘날 여전도회의 바탕이 된 조직으로, 세핑이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체의 하나로 평가받는 장로교의 여성조력회를 모델로 삼아서(Knox, 1926: 216)⁵²⁾ 처음으로 조직하고 한국적인 형태에 맞춰 발전시켰다. 세핑은 미국 남장로교 여성조력회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윈스보로 부인(Mrs. W. C. Winsborough, 1865~1940)의 여성조력회 창립 제안에 동의하였고, 수피하여 학교 교사인 김필례(金弼禮, 1891~1983)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남장로교회 여성조력회와 관련된 영문자료를 번역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림 1〉 김필례(金弼禮)⁵³⁾

김필례는 세핑의 영향과 미국남장로교 여성조력회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향후 한국 여전도회 활동, YMCA 창설 및 운동, 여성교육과 사회변혁을 실천했으며⁵⁴⁾ 공창폐지기성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⁵⁵⁾ 이렇듯 세핑과 김필례 등의 노력으로 1921년 금정교회(현 광주제일교회)에서 첫 여

〈21면으로 계속〉

〈20면에서 계속〉

성조력회가 조직되었고, 이것은 이후 전주(1923), 목포(1924), 제주(1925), 군산(1927), 순천(1930)으로 확대되어 운영되었다. 1933년 세핑은 이일학교 제자인 강계생(姜桂生 개명 후 강형신, 1968~1971)이 제1대 회장으로 피선된 제주노회 부인조력회 총회(현 제주노회 여전도회연합회)에 참가했다.⁴⁷⁾ 이것은 세핑 다음으로 이어지는 직계 제자들이 하나의 직급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이다.

조력회 가입의 주된 대상은 교회의 여성들이었는데, 그 목적은 이들을 교육하여 국내 전도·해외 선교·농촌 사역·기독교 문서 사역·나환자 사역·청년 사역 등 다양한 총회의 사역들에 협력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일학교 졸업생들은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전도부인(전도사)이 되거나 선교사, 사회운동가, 간호사가 되었고, 이들은 주로 여성조력회를 통해서 활동했다. 이일학교 이후로 이어지는 여성 해방을 위한 노력이 여성조력회에서 여성지도자 육성과 교회의 여성사역 활성화로 나타난 것이다. 세핑은 “이일학교가 교회의 조력기관으로 훌륭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노회의 임원들이나 대표자들 가운데 이일학교 출신들(성경과와 일반과)이 많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여 여성조력회와 주일학교, 여성절제회(W.C.T.U.)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였다.⁴⁸⁾

여성절제운동 역시 이일학교와 여성조력회를 통해 조직화되었다. 세핑은 조선여자기독교 금주동맹을 구성하여 이일학교 학생들을 교육했고, 학생들은 금주 어깨띠를 두르고 주점가를 누비며 술의 악독과 위험에 대한 전단지들을 나눠주었다.⁴⁹⁾ 금주운동을 통해 실제로 율락여성이 구조되는 사례가 존재했고, 이것은 이후 절제운동으로 발전하여 조선여성절제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27년 세핑은 여성절제회(W.C.T.U.) 남장로교 선교부 대표로 임명되었고, 이일학교 학생들이 여성절제회의 구성원으로서 금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왔다.⁵⁰⁾

이일학교는 확장주일학교의 기반이 되어 학생들이 더 적극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확장주일학교는 광주 주변 20리 안팎에 주일학교가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된 주일학교로, 주일마다 이일학교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 및 장년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세핑은 광주주일학교연합회 실행위원회 회장으로서 교사들을 확보하고 조직하여 5회에 걸쳐 일일방학성경학교를 감독했고, 1년에 2회에 걸쳐 이일학교 학생들을 순회교육에 파송시켰다. 또한, 이들을 위한 주일학교감습회를 마련해 실시하기도 했다. 이일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세핑의 노력 덕분에 기도모임과 구역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었고 일종의 직업의식을 가진 교육 지도자로서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핑은 서양인 졸업간호부회를 조선간호부협회와 합하여 1923년 4월에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조직을 정비해나갔다.⁵¹⁾ 이것의 목적은 한국을 국제간호협회에 가입시킴으로써 일제강점기 주권을 빼앗긴 조국의 권리를 한국간호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과,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인 여성의 해방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세핑은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1925년부터 1934년까지 10년 동안 총 34회의 조선간호부회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모두 발간하였다.

또한, 세브란스에서 근무하는 동안 쉴즈(Esther Lucas Shields, 1868~1940)와 함께 간호교육의 기준을 재조정하고, 간호 잡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간호 교과서, 실용 간호학, 간호요강, 간이 위생법, 간호사업사 등 다양한 간호학 번역서를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⁵²⁾ 이후 국제간호협회에 입회 청원을 문의하여 조선간호부회 창립 6년 만에 국제간호협회의 준회원으로 입회하였고, 정회원 가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29년 조선간호부회는 일본간호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간호협회 회원가입을 신청했고, 1932년 세핑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국제간호협회 총회 참석을 위해 군산에서 간호사로 가르쳤던 제자 이효경과 조선간호부의 임원인 이금전 두 간호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파견하였다.⁵³⁾ 이것은 한국 간호원 자격으로는 최초로 국제회의에 참석한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929년 「조선간호부회보」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192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만국간호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조선간호부회에서는 대표 세 사람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핑양·이효경·이금전 삼인은 6월 13일 불란서기선 엠프레스호로 횡빈에서 출발하였다. ... (생략) 우리는 이금전양의 허가를 받아 그가 쓴 편지의 일절을 여기 인용한다. “나는 가정과 원유학교와 소아건강증진회 등을 방문하기에 많은 재미를 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기치 않은 빈동의 가정상태를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조선빈민굴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 (생략) 내가 여기 와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아무리 빈곤한 가정이라도 가정의사가 있는 것과 또한 사회생명에 큰 도움이 되는 많은 설립회 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낮에 모친이 안계신 동안에 간호부가 와서 아동간호하는 것을 시찰하려고 합니다. 인가방문자는 가정을 조사하여 의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의복을 줍니다. ... (생략)”⁵⁴⁾

이처럼 이금전은 캐나다의 건강관리 체계를 우리나라의 건강관리 체계와 비교하면서 느낀 점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귀국 후 한국 간호학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데 노력하였다. 만국간호부회에 참석한 이효경, 이금전은 모두 세핑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향후 조선의 간호 및 위생건강 활동에 영

향을 미쳤다. 이효경은 조선간호부회 출판(발간) 및 천거 위원으로서 잡지 인쇄를 하기 위해 매년 두 번씩 모여 의논하고 동의를 표했고,⁵⁵⁾ 광포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⁵⁶⁾

또한, 1919년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훈련학교를 졸업하고⁵⁷⁾ 1928년에는 세핑 밑에서 대한간호협회 부통령으로 일하기도 했다.⁵⁸⁾ 이효경은 만국간호부회에 참석한 이후 토론토 곳곳을 둘러보며, 캐나다의 위생상황, 아동의 건강상태, 가정의사와 간호사의 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이것은 위생과 아동의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했던 조선의 위생체계 분야에 하나의 귀감이 되는 국가 위생관리시스템을 제안한 셈이었다. 1932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만주 피난동포 위문 겸 치료 목적으로 파견되어 만주 각지의 수용소를 돌고루 순회치료하기도 했다.⁵⁹⁾ 이효경은 이러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간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개척공로상을 수상했다.⁶⁰⁾

이금전은 1929년 세브란스 산과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후⁶¹⁾ 산과직과 육아사업에 종사하였고, 조선간호부회에서 주요 학술활동을 하였다. 또한, 조선간호부 대표로서 국제간호협회를 참석한 것을 계기로 캐나다 토론토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공중위생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사회보건 사찰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제출한 가장 우수한 보건간호학 리포트 두 건 중 한 건으로 선발된 만큼 보건간호 분야에서 유능함을 보이기도 했다.⁶²⁾

이러한 성과는 당시 한국인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신의 한계를 깨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금전은 조선간호부회가 대한간호협회로 변경된 이후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대한간호협회장을 지냈고, 1957년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국제간호협회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홍옥순과 함께 참석했다.⁶³⁾ 1959년에는 세브란스 간호고등학교 교장직을 맡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를 역임하기도 했다.⁶⁴⁾

이후 이금전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1955년 서울특별시로부터 의료계 분야 중앙간호연구원장 직책으로 공로표창을 받았고,⁶⁵⁾ 1957년 세계보건일을 맞아 보건사회부로부터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았으며,⁶⁶⁾ 1959년 제17회 나이팅게일 수상자도 되었다.⁶⁷⁾ 이처럼 세핑의 간호활동과 교육을 통해 한국인 여성들은 국제적 자격을 갖춘 국내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세핑은 이효경과 이금전 같은 차세대 리더양성에도 역점을 기울였고 한국의 가난한 여성이 세계무대로 극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이효경(李孝卿)⁵⁵⁾〈그림 3〉 이금전(李金田)⁶⁸⁾

세핑은 조선을 국제간호협회 정회원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대표부를 거쳐가며 개인적으로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조선의 간호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29년 세핑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안식년을 국제간호협회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고, 1932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 간호협회에 이를 동안 참석하여 일본 간호협회 앞에서 조선간호부회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은 세핑이 서거한 후 1949년이 되어서 비로소 국제간호협회 정회원국이 되었다. 이후 1989년 제19차 국제간호협회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고, 2015년 6월 국제간호협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했다.⁷⁰⁾ 이렇듯 한국의 간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세핑이 조선간호부회 회장으로서 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세핑은 남장로회 초기 내한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를 시작으로 7인 선교사(레이놀즈, 패시볼링, 전킨, 메리 레이번, 테이트, 메티 테이트, 리니 데이비스)-유진벨-오원-포사이드-윌슨 등으로 이어지는 남장로회 중심 의료선교의 역사 속에서, 광주 제중원을 시작으로 기독교 의료선교의 확립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녀는 당시 미국 백인층이 가지고 있던 관념과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한국의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그 생활양식을 바꾸고, 한국어 학습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간호사 의료선교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세핑은 의료체계

(22면으로 계속)

〈21면에서 계속〉

가 구축되기 전부터 광주, 군산, 서울에서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의료선교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일학교 건립을 통해 한국인 여성이 교육지도자 및 간호인력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제중원 2대 원장인 윌슨과 협력하여 제중원이 전남지역의 중심 의료 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광주나병원을 중심으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주력하였고, 1930년대 최홍종 목사와 함께 구라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센병 환자의 구제와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를 발전시켰다.

세핑의 주도 하에 1923년 4월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가 창립되었고, 1929년 조선간호부회는 국제간호협회 준회원으로 입회하였다. 당시 일제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1949년 국제간호협회 정회원국으로 입회함으로써 한국 간호학계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또한, 당시 한국은 각 질병에 맞는 정확한 치료법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미국의 제일 유명한 치료법을 따르는 경우가 존재했는데,¹³⁾ 국제간호협회 정회원국의 자격을 갖추면서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간호역사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세핑의 제자였던 이금전이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역임함으로써 세핑-이금전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간호사의 계보가 확립되었다. 세핑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한국인 여성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하여 근대 여성으로서 뚜렷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실질적인 경제적 해방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세핑은 여자성경공부반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일학교-여성조력회-여성절제운동-확장주일학교-대한간호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교육과 경제적 자립

에 주력하였고 이것을 여성해방 차원으로 이끌어냈다. 일제 시기 한국인 여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던 상황에서, 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시키고 사회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자활을 도운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력을 갖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1969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세핑의 여성계몽 및 사회구제 역할을 인정하여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하였다. 훈장수여 근거로는 세핑이 ① 기독교금주회 조직으로 여성들을 선도하고, ② 고아들의 입양과 양육에 노력했으며, ③ 한국간호원협회(현 대한간호사협회)를 창립해 국제간호원협회에 가입시켰고, ④ 성경교육을 통해 여성계몽사업에 헌신해 우리나라 문화발전기에 기여한 공로 등이 언급되었다.¹⁴⁾ 이처럼 세핑의 적극적인 의료선교와 여성교육의 보급을 통해 근대 한국인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해방을 추구할 수 있었다.

세핑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복음의 전파와 관련된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그녀가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하고 한국인 여성 지도자 교육을 확대하여 여성 해방을 선구적으로 이끈 역할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한국의 여성사에 있어서 세핑의 사회구제사업, 여성 교육의 확대 및 지도자 양성에 대한 업적은 젠더적 시각으로 분석했을 때, 근대 한국 여성을 사회적·경제적으로 해방시킨 선구적 역할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근대여성사에서 세핑이 의료선교사로서 이효경 및 이금전을 중심으로 차세대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를 양성한 업적을 인정하고, 그녀의 역사적 위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

주 석

- 1) 조현, 한말·일제강점기 내한 간호선교사의 사역 연구, 『한겨레 신문』 2012년 3월 14일.
- 2) 조현, 조선의 테레사, 서서핑을 기억하다, 『뉴스앤조이』 2012년 3월 14일.
- 3) 세핑의 서거 80주년을 기리는 세미나가 2014년 6월 26일 전주 평화생명교회(목사 임희모)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천국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특강, 연구 발표, 연극 독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 4) 뮤지컬 '서서핑'이 7월 11일과 12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되었다. 이 뮤지컬은 '길 위에서 서핑을 만나다'라는 부제로 서서핑이 간호사로 부임해서 살을 마칠 때까지 그녀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 5) 한일장신대학교(총장 구춘서) 설립자인 서서핑(본명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Elis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에 관한 다큐영화 '서서핑, 천천히 평온하게'가 4월 26일 개봉했다. 홍주연·홍현정 감독의 이 영화는 기독교방송 CGN TV에서 제작한 첫 번째 영화 프로젝트로, 서서핑 선교사의 선교사역 활동을 다루었다.
- 6) 최영근, 미국 남장로교 여성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 (Elizabeth J. Shepping, R. N.)의 통전적 선교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1, 2012.
- 7) 임희모, 전문인선교사 서서핑(Elizabeth J. Shepping)의 통전적 선교 전략과 영성, 『신학논단』 74, 2013.
- 8) 임희모, 서서핑(Elizabeth J. Shepping, R.N.) 선교사의 성육신적 선교, 『선교와 신학』 36, 2015.
- 9) 임희모, 토착화 선교사 서서핑(Elizabeth J. Shepping)의 사역, 『선교와 신학』 48, 2019.
- 10) 김기용, 서서핑의 사회선교로 본 상황화 선교와 한국교회, 『선교와 신학』 50, 2020.
- 11) 이란·지상선, 이웃 사람과 자기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핑>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신앙과 학문』 22-4, 2017.
- 12) 윤매옥, 일제강점기 서서핑 간호선교사의 삶과 간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2-1, 2016(a).
- 13) 윤매옥, 한국인을 위한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의 교육과 전인적 간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 2016(b).
- 14) 차성환, 근대적인 전문 사회사업의 선구자 서서핑, 『답문』 201, 17-4, 2014.
- 15) 김은주, 서서핑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대한 함의, 『신학과 사회』 29-2, 2015.
- 16)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 1, 피디아, 2015.
- 17)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2·5·9·10·13호, 1926~1929.
- 18) 김호옥, 한국선교 초기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신학 연구(1892년~1910년), 『광신논단』 24, 2014, 202쪽.
- 19) 남장로회 선배대 7인 선교사는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1867~1951, 이눌서), 페시볼링(Patsy Bolling, 1868~1962), 전킨(William McCleery Junkin, 1865~1908, 전위림), 메리 레이번(Mary Leyburn, 1865~1952), 테이트(Lewis Boyd Tate, 1862~1929, 최의덕), 매티 테이트(Mattie Samuel Tate, 1864~1940, 최마태), 리니 데이비스(Linnie Fulkerson, Davis, 1862~1903)이다.
- 20) 이현주, 여성의사와 해외선교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내한 미국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 『梨花史學研究』 63, 2021, 460-461쪽.
- 21) 본 논문에서 제시된 <표 1>은 '이현주, 앞의 논문, 435-436쪽'에서 언급된 '의료선

- 교사'라는 표현 대신 '역할 불분명 의료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22) 홍창희, 일제강점기 전반기 여자의학교육의 배경과 여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 발표, 2022, 2월 16일.
- 23) 이방원, 박 에스더(1877-1910)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 『醫史學』 16-2, 2007, 196-197쪽.
- 24) 이방원, 위의 논문, 203쪽.
- 25) 윤매옥, 앞의 논문, 2016(b), 63쪽.
- 26) 임희모, 『서서핑 선교사의 통전적 영혼 구원 선교』, 동연, 2020, 71쪽.
- 27)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1, 피디아, 2015, 103쪽.
- 28) 이용교, 일제하 구라행진의 실행과 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역사연구』 1, 2018, 55쪽.
- 29) 윤매옥, 앞의 논문, 2016(b), 65쪽.
- 30) 윤매옥, 위의 논문, 2016(b), 64쪽.
- 31) 임희모, 앞의 책, 93쪽.
- 32)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1, 피디아, 2015, 105쪽.
- 33) 人道問題講演(인도문제강연), 『동아일보』, 1925년 1월 30일.
- 34) 人道問題講演(인도문제강연), 『동아일보』, 1925년 1월 30일.
- 35) 윤매옥, 앞의 논문, 2016(b), 66쪽.
- 36)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사업상대, 『조선간호부회보』 13호, 1929, 4쪽.
- 37) 이용교, 앞의 논문, 2018, 55쪽.
- 38) 윤매옥, 앞의 논문, 2016(b), 66쪽.
- 39) 윤매옥, 위의 논문, 2016(b) 65쪽.
- 40)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1, 피디아, 2015, 106-107쪽.
- 41)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장보고, 『조선간호부회보』 9호, 1928, 15~16쪽.
- 42)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장보고, 『조선간호부회보』 13호, 1929, 13쪽.
- 43) 임희모, 앞의 논문, 2019, 350쪽.
- 44)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1, 피디아, 2015, 113쪽.
- 45)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1, 피디아, 2015, 113쪽.
- 46) 최영근, 앞의 논문, 2012, 248쪽.
- 47)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1, 피디아, 2015, 117쪽.
- 48) 이용교, 앞의 논문, 2018, 63쪽.
- 49) 차성환, 앞의 논문, 2014, 41쪽.
- 50) 「[사진] 金聖禮(김필례)」, 『조선일보』, 1928년 1월 4일.
- 51) 임희모, 앞의 논문, 2019, 353쪽.
- 52) 公娼廢止(공창폐지)로 期成會(기성회)까지組織(조직), 『조선일보』, 1923년 12월 28일.
- 53) 임희모, 앞의 논문, 2019, 354쪽.
- 54) 최영근, 앞의 논문, 250-251쪽.

- 49) 김은주, 앞의 논문, 2015, 76쪽.
 50)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1」, 피디아아, 2015, 126쪽.
 51) 윤매옥, 앞의 논문, 2016(b), 67쪽.
 52) 윤매옥, 앞의 논문, 2016(a), 75쪽.
 53) 윤매옥, 앞의 논문, 2016(b), 67쪽.
 54) 조선간호부회, 반국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13호, 1929, 20-21쪽
 55)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2호, 1926, 6쪽
 56)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2호, 1926, 8쪽
 57)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5호, 1927, 8쪽
 58)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10호, 1928, 12쪽
 59) 世醫專(세의전)서滿洲(만주) 避難同胞慰問(피난동포위문), 「동아일보」, 1932년 2월 21일.
 60) 看護協會(간호협회)창립50周年(주), 「조선일보」, 1973년 4월 18일.
 61)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13호, 1929, 15쪽.
 62) 32年間苦難(연간고난)의奉仕(봉사), 「동아일보」, 1959년 5월 31일.
 63) 世界保健日(세계보건일), 「경향신문」, 1957년 4월 8일.
 64) 나이팅겐 記意(기억)에 빛나는李女史(이여사) 이경나팅, 「조선일보」, 1959년 5월 22일.
 65) 市廳當局女性(시청당국여성)19名表彰(명표창) 解放以後公共事業(해방이후공공사업)에功勞(공로), 「경향신문」, 1955년 9월 25일.
 66) 世界保健日(세계보건일), 「경향신문」, 1957년 4월 8일.
 67) 李金田女史(이금전여사), 「조선일보」, 1959년 5월 19일.
 68)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10호, 1928, 부록.
 69) [사진] 李金田(이금전), 「조선일보」, 1930년 7월 10일.
 70) 윤매옥, 앞의 논문, 2016(b), 68쪽.
 71)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사업상대, 「조선간호부회보」, 13호, 1929, 2쪽.
 72) 정재영, 서서평 국민훈장 추서, 50년 만에 기록 확인, 「기독신문」 2018년 12월 28일.

참고 문헌

1) 사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기독교보」, 「전북도민일보」, 「뉴스앤조이」, 「국민일보」, 「전북일보」, 「동아일보」, 「뉴스파워」, 「연합뉴스」, 「기독신문」, 「전북중앙」, 「스포츠동아」, 「스포츠투데이」, 「크리스천투데이」, 「금강일보」, 「비즈니스」, 「전자신문」, 「국제신문」, 「월간조선뉴스룸」, 「무등일보」, 「디지털타임스」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제중원 편지1,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연구도서 시리즈1」, 피디아아, 2015.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회보」, 2·5·9·10·13호, 1926~1929.

2) 단행본

김양호, 「목포 기독교 이야기」, 세움북스, 2016.
 김양호, 「전남 기독교 이야기1」, 세움북스, 2019.
 김양호, 「전남 기독교 이야기2」, 세움북스, 2020.
 김양호, 「전남 기독교 이야기3」, 세움북스, 2020.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2020.
 박상진, 임희국, 채송희, 「한국에 비쳐진 복음의 빛」, 기독교문사, 2017.
 백춘성, 「천국에서 만납시다」, 대한간호협회, 1980.
 백춘성,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두란노, 2017.
 순천시기독교역사박물관, 「순천시기독교역사박물관」, 순천시기독교역사박물관, 2018년.
 양창삼, 「조선을 섬긴 행복」, 서빙더피플, 201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08.
 임희모, 「서서평, 예수를 살다」, 케노시스, 2015.
 임희모, 「행함있는 믿음으로 본·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평, 서서평연구회, 2017.
 임희모, 「서서평 선교사의 동전적 영혼 구원 선교」, 동연, 2020.
 임희모,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여성·의료선교사」, 동연, 2022.

3) 연구 논문

강성호, 「미국 남장로회의 호남선교: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9, 2018.
 공혜정, 「버려진 돌'에서 '모퉁이 돌'로 - 한국의 박에스터(金點童, 1877~1910)와 중국의 캉청(康成, 1873~1930) 비교 -」, 「梨花史學研究」 62, 2021.
 공혜정, 「한국 최초의 여성 의학전문교육기관 탄생의 산과 역할을 한 산부인과 의사, 김정희」, 「대한의사협회지」 64-10, 2021.
 김기용, 「서서평의 사회선교로 본 상황화 선교와 한국교회」, 「선교와 신학」 50, 2020.
 김빛나,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광주지역 선교 연구: 의료, 교육, 교회개혁 사역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1.
 김은주, 「서서평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대한 함의」, 「신학과 사회」 29-2, 2015.
 김지혜, 「미국 남장로회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와 삶 - 미국 남장로회 연례 선교회의록에 수록된 여성 선교사 추도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 2022.
 김형균, 「순천지역 의료선교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0.
 김호욱, 「한국선교 초기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신학 연구(1892년~1910년)」, 「광신논단」 24, 2014.
 옥성득, 「초기 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36, 2012.
 윤매옥, 「일제강점기 서서평 간호선교사의 삶과 간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2-1, 2016.
 윤매옥, 「한국인을 위한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의 교육과 전인적 간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 2016.
 윤선자, 「한말 박에스터의 미국 유학과 의료 활동」, 「여성과 역사」 20, 2014.
 이란·지상선,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평>에 대한 기초학적 분석」, 「신앙과 학문」 22-4, 2017.
 이방원, 「박 에스터(1877-1910)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 「醫史學」 16-2, 2007.
 이용교, 「일제하 구라헨진의 실행과 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역사연구」 1, 2018.
 이현주, 「두 개의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로: 로제타 S. 홀의 육아일기에 나타난 선교사 자녀의 삶 그리고 의료선교, 1893-1902」, 「梨花史學研究」 58, 2019.
 이현주, 「여성의사와 해외선교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내한 미국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 「梨花史學研究」 63, 2021.
 이해숙,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평(Elizabeth Johanna Shepping)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30-4, 2016.
 이해원, 「남감리회 조선 초기 선교에 있어서 중국인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 - 1897~1905년 마슈전(馬秀珍)과 위츠두(余慈度)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임희모, 「전문인선교사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의 동전적 선교 전략과 영성」, 「신학논단」 74, 2013.
 임희모,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 R.N.) 선교사의 성육신적 선교」, 「선교와 신학」 36, 2015.
 임희모, 「토착화 선교사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의 사역」, 「선교와 신학」 48, 2019.
 차성환, 「근대적인 전문 사회사업의 선구자 서서평」, 「담론」 201, 17-4, 2014.
 최영근, 「미국 남장로교 여성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Elizabeth J. Shepping, R.N.)의 동전적 선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1, 2012.
 한규무,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부의 전남지역 의료선교(1898~1940)」, 「남도문화연구」 20, 2011.
 한미영·손수경, 「한말·일제강점기 내한 간호선교사의 사역 연구」, 「신앙과 학문」 19-3, 2014.
 황상익·기창덕, 「朝鮮末과 日帝強占期 동안 來韓한 西洋 宣敎醫療人의 활동 분석」, 「의사학」 3-1, 1994.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치

국립목포대학교가
여러분의 **미래가치**를 **같이** 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2022. 12. 29.(목) 09:00 ~ 2023. 1. 2.(월) 18:00

※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관련 홈페이지(ipsi.mokpo.ac.kr)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상담: 061-450-6000, 6001]